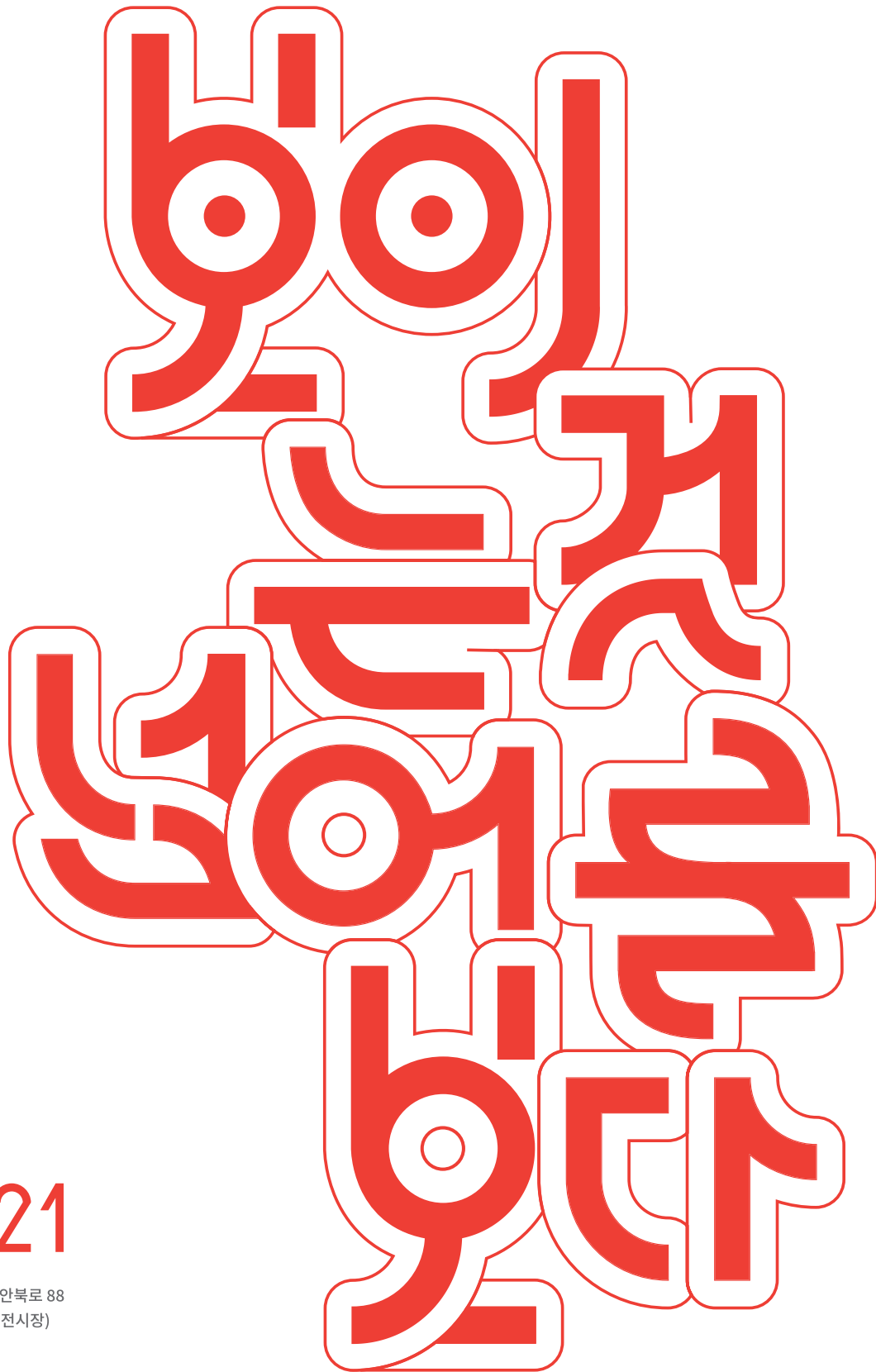


THE 47th DDUIM EXHIBITION

MOKWON univ. Visual Design

각성 : 보이는 것 너머를 보다



04.21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미술관(전시장)
Open 6pm

04.27

**THE 47th
DDUIM EXHIBITION**

2026. 4. 21 - 4. 27

AWAKENING

각성 : 보이는 것 너머를 보다

1980

1990

- 1st 1980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 2nd 1981 대전시민회관
- 3rd 1982 대전시민회관
- 4th 1983 대전시민회관
- 5th 1984 [동물을 주제로 한 시각디자인전]
대전시민회관 · 디자인 포장센터
- 6th 1985 [카렌다전]
대전시민회관 · 디자인 포장센터
- 7th 1986 [무대디자인 포스터전]
대전시민회관 · 명동 유네스코 회관
- 8th 1987 [책을 주제로 한 시각디자인전]
대전시민회관
- 9th 1988 [충청도 풍자전]
명동 금강 르느와르 전시관
- 10th 1989 [똥]
명동시민회관 · 명동 르느와르 전시관

- 11th 1990 [남과 북, 자유]
대전 현대화랑 · 동승동 토탈 갤러리
- 12th 1991 [사랑, 돌출]
대전문화원 · 동승동 토탈 갤러리
- 13th 1992 [환경]
대전 삼성생명 전시관
- 14th 1993 [Green]
대전 현대화랑
- 15th 1994 [Open, 열림]
대전 교보아케이드
- 16th 1995 [세계화]
대전 삼성생명 전시관
- 17th 1996 [96's Environment]
대전 교보아케이드
- 18th 1997 [과소비]
대전 삼성생명 전시관
- 19th 1998 [Fighting Korea]
대전 시민회관
- 20th 1999 [Trash]
대전시민회관

2020

- 41st 2020 [성 인지 감수성]
온라인 전시
- 42nd 2021 [PUBLIC SERVICE]
목원대학교 미술관

- 43rd 2022 [한국다움]
목원대학교 미술관
- 44th 2023 [SAVE THE ENVIRONMENT]
목원대학교 미술관

2000

2010

21st 2000 [이어쥬]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

31st 2010 [환경 살리기 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22nd 2001 [Event 행사 포스터전]
대전 롯데백화점 갤러리

32nd 2011 [공익 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23rd 2002 [책 홍보 포스터전]
대전 롯데백화점 갤러리

33rd 2012 [공익 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24th 2003 [ART 포스터전]
대전 현대갤러리

34th 2013 [공익 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25th 2004 [Object전]
대전 대덕 문화센터 5층 갤러리

35th 2014 [공익 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26th 2005 [Emotion]
대전 대덕 문화센터 5층 갤러리

36th 2015 [공익 포스터전]
대전 KBS 갤러리

27th 2006 [With전]
연정국악 문화관

37th 2016 [공익 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28th 2007 [공익광고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8th 2017 [공익 포스터전]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시실

29th 2008 [공익 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9th 2018 [공익 포스터전]
목원대학교 미술관

30th 2009 [공익 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40th 2019 [공익 포스터전]
목원대학교 미술관

45th 2024 [왜 사랑을 잃었는가]
목원대학교 미술관

47th 2026 [각성 : 보이는 것 너머를 보다]
목원대학교 미술관

46th 2025 [공존, AI+DESIGNER]
목원대학교 미술관

뎀은 1980년 창립전 이래로 현재 47회를 맞이하는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와 전통 있는 정기전입니다.
3, 4학년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최근 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발상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것
은
어
떻
게
하
는
것
일
까

각성

보이는 것 넘어를 보다

'각성'은 뉴미디어 시대 속에서 점차 무뎠어지는 사고에서 벗어나 깨어나 나자는 의미이다. 이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미디어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가짜 뉴스나 알고리즘, AI가 만든 이미지처럼 익숙하지만 분별하기 어려운 정보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다시 짚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들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우리는 뉴미디어를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우리만의 시선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시장에 담긴 고민의 흔적들이 관객들에게 전달되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47회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뎀 그래픽 전시회의 뎀장 박예슬입니다.

어느덧 창밖의 풍경이 바뀌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오래 마주하는 '화면 속 풍경'은 계절보다 훨씬 빠르고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는 우리에게 분명 편리함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복되는 자극과 과잉된 이미지들은 우리의 사고를 단순하게 만들고, 무엇이 진짜인지 판단해야 할 주체성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민할 틈도 없이 그저 '보고만 있는' 상태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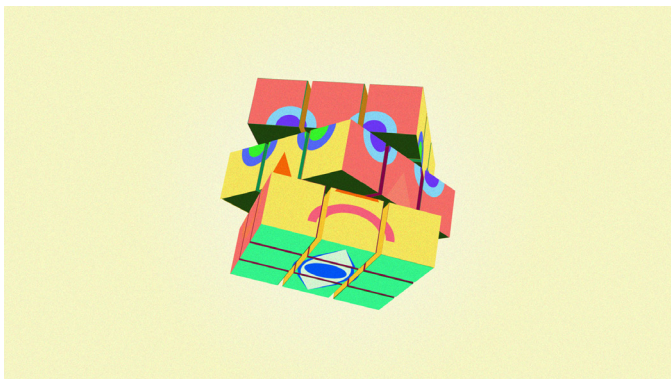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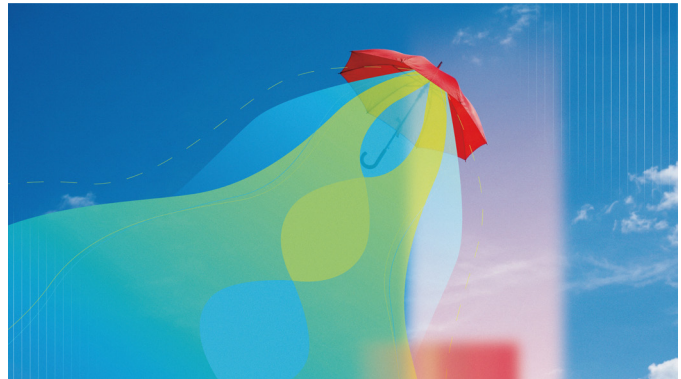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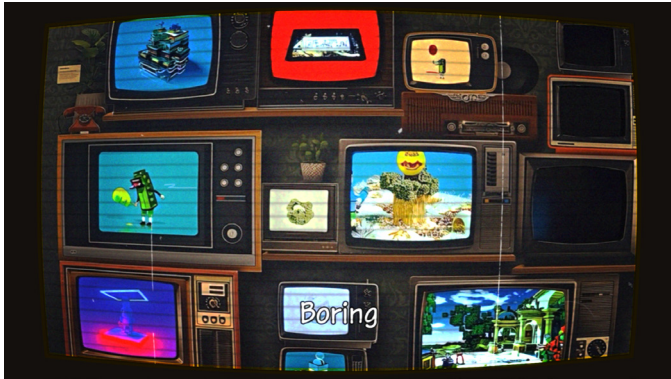
이번 전시의 주제인 '각성'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온 것들, 무관심하게 지나쳐 온 장면들에 대해 "왜?"라는 의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이미 깨어난 상태인 '각성'에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제인 '보이는 것 너머를 보다' 역시, 수동적으로 보고만 있는 관성을 넘어 우리만의 깨어난 시각으로 세상을 마주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극은 빨라지고 사고는 멈추기 쉬운 시대입니다. 시각디자인을 공부하는 저희에게 '제대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디자인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가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는 기분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각자의 '넘어'를 찾기 위해 함께 밤을 지새우며 고민한 부뎀장, 각 팀을 이끌어준 리더와 부리더들,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작품을 완성해 낸 3, 4학년 학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시각디자인학과 제47회 뎀장 박예슬

제47회 뽀 그래픽 전시회 영상



전시 주제인 '각성'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익숙한 일상을 무의미하게 바라보던 시선이 '각성'을 계기로 전환되며 이후 숨겨져 있던 구조와 패턴, 관계가 드러나며 짧은 컷과 간결한 모션그래픽의 반복을 통해 '보이는 것 넘어'를 인식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마지막에는 세상은 그대로지만,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76 WORKS

각성 : 보이는 것 너머를 보다



웹장
박 예 슬

Park ye seul
ysdrdsy03@gmail.com



CCTV_see see to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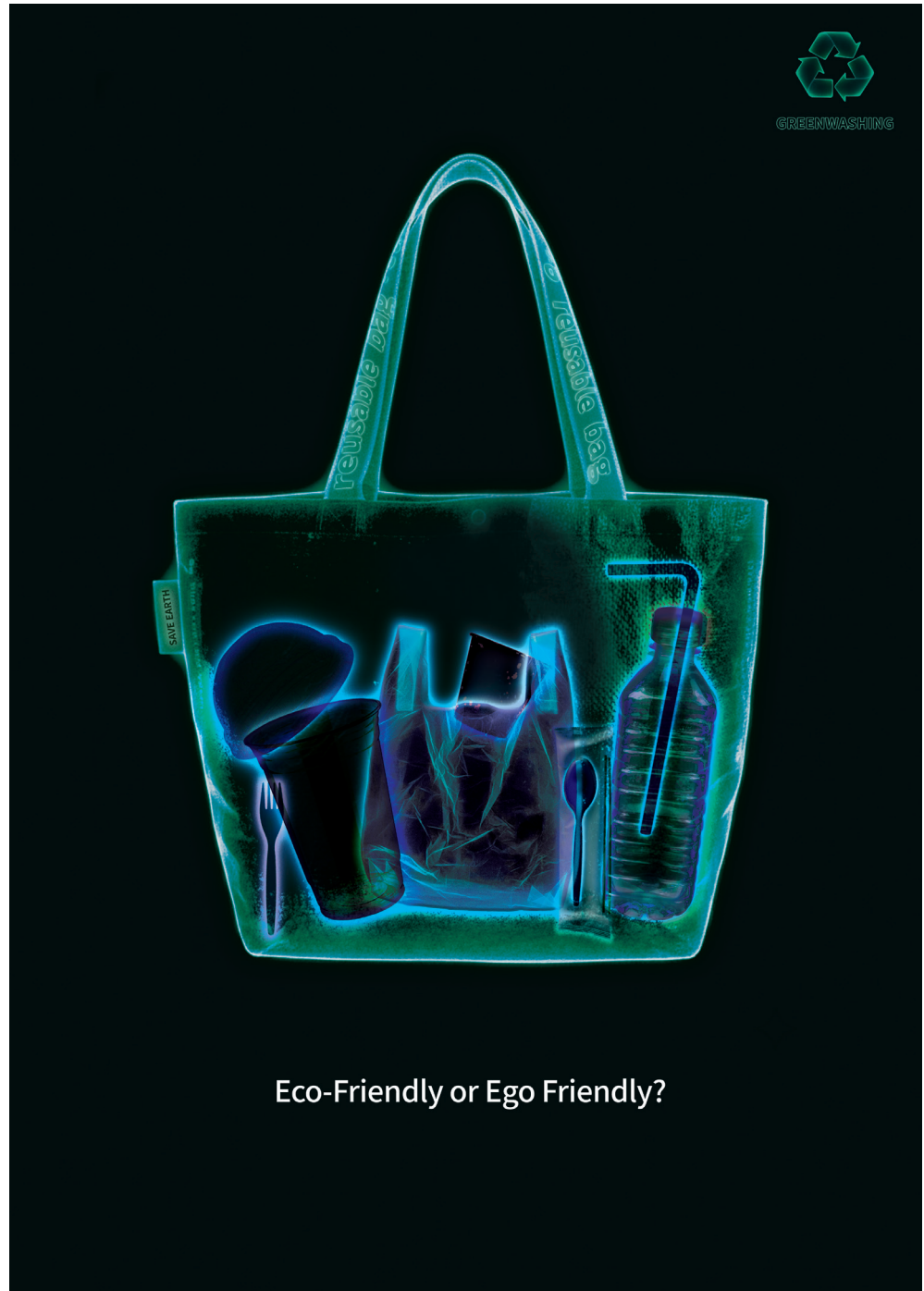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see see to you'라는 언어유희와 기계화된 훔채 이미지를 통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편한 감각을 유도한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착각에서 벗어나 감시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부원장

김 예 린

Kim ye rin
yemung2@naver.com



Eco-Friendly or Ego Friendly?

Eco-Friendly or Ego-Friendly?

친환경의 상징인 리유저블백 속에 환경오염 물건들을 배치해, 친환경 이미지를 소비하는 현대인의 모순적인 태도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이를 통해 환경을 위한 실천과 개인의 만족 사이에서 나타나는 위선적 소비문화를 비판하고자 한다.



포스터 리더

황수진

Hwang su jin
n1zus@naver.com



Structure of convenience

AI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 뒤에서 생겨나는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익숙해진 기술 사용 방식에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판단해 각성하도록 유도한다.



편집 리더
고 은 하

Go eun ha
dmsgkdkfk@naver.com



조작

각종 미디어에서 인물이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표현했다. 매체 속 인물은 왜곡되고 과장된 이미지로 그려지며, 사생활과 같은 개인적 영역이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드러낸다.



영상 리더

서 구

Seo gu

tjrnsplq@gmail.com

저마다의 조각이 모여, 하나의 안전이 됩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익광고협회의

안전 한 조각

안전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약속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우리가 지키는 안전 규칙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 만들어낸 '약속의 형상'이며, 이를 블록으로 조립된 안전모로 표현했다.



전시기획 리더

박 간 비

Park gan bi
qkrrksq123@gmail.com



정보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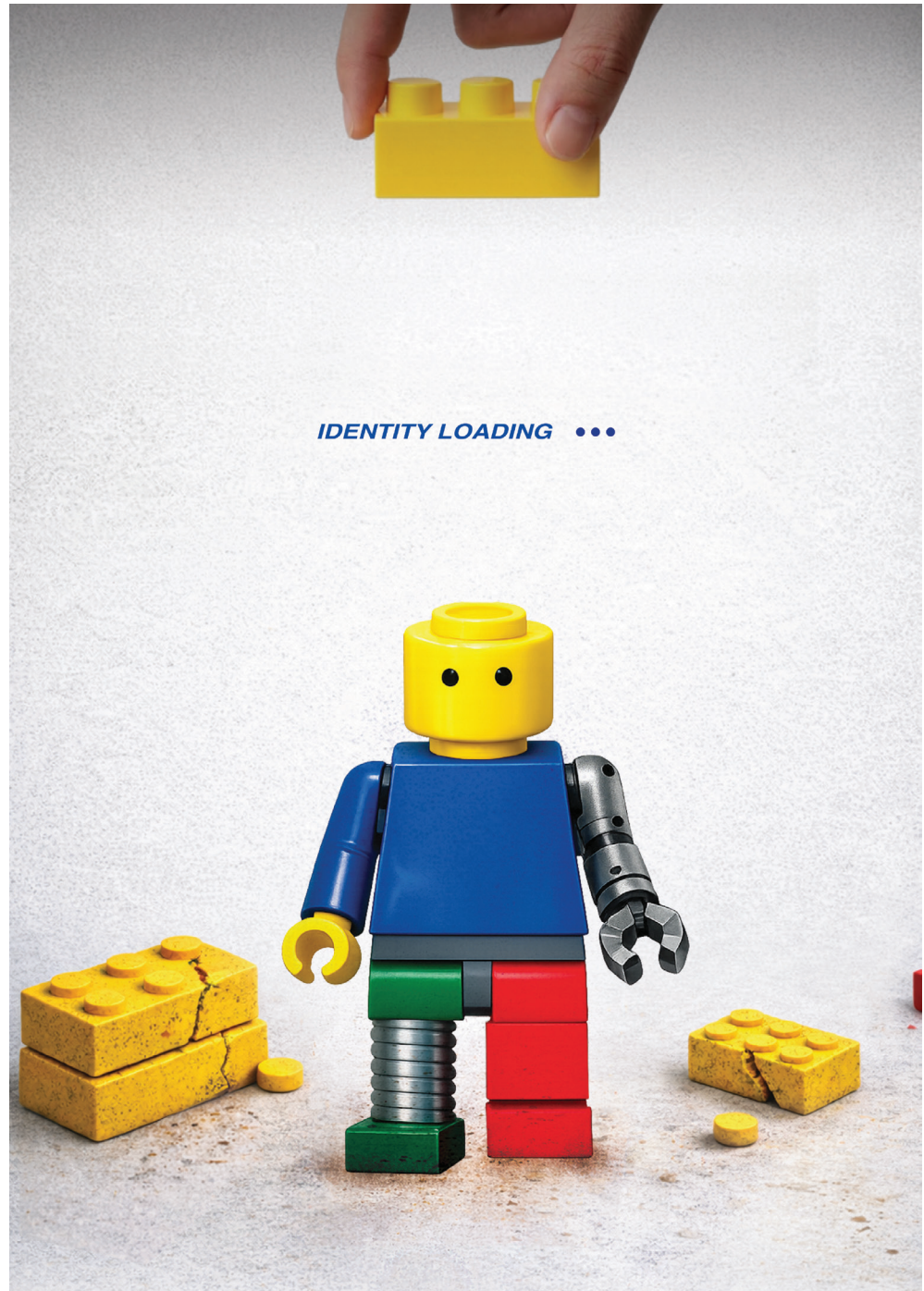
정보가 가득한 온라인 세상에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헤매는 현대인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포스터 부리더

김민진

Kim min jin
alraosand@gmail.com



Identity Lo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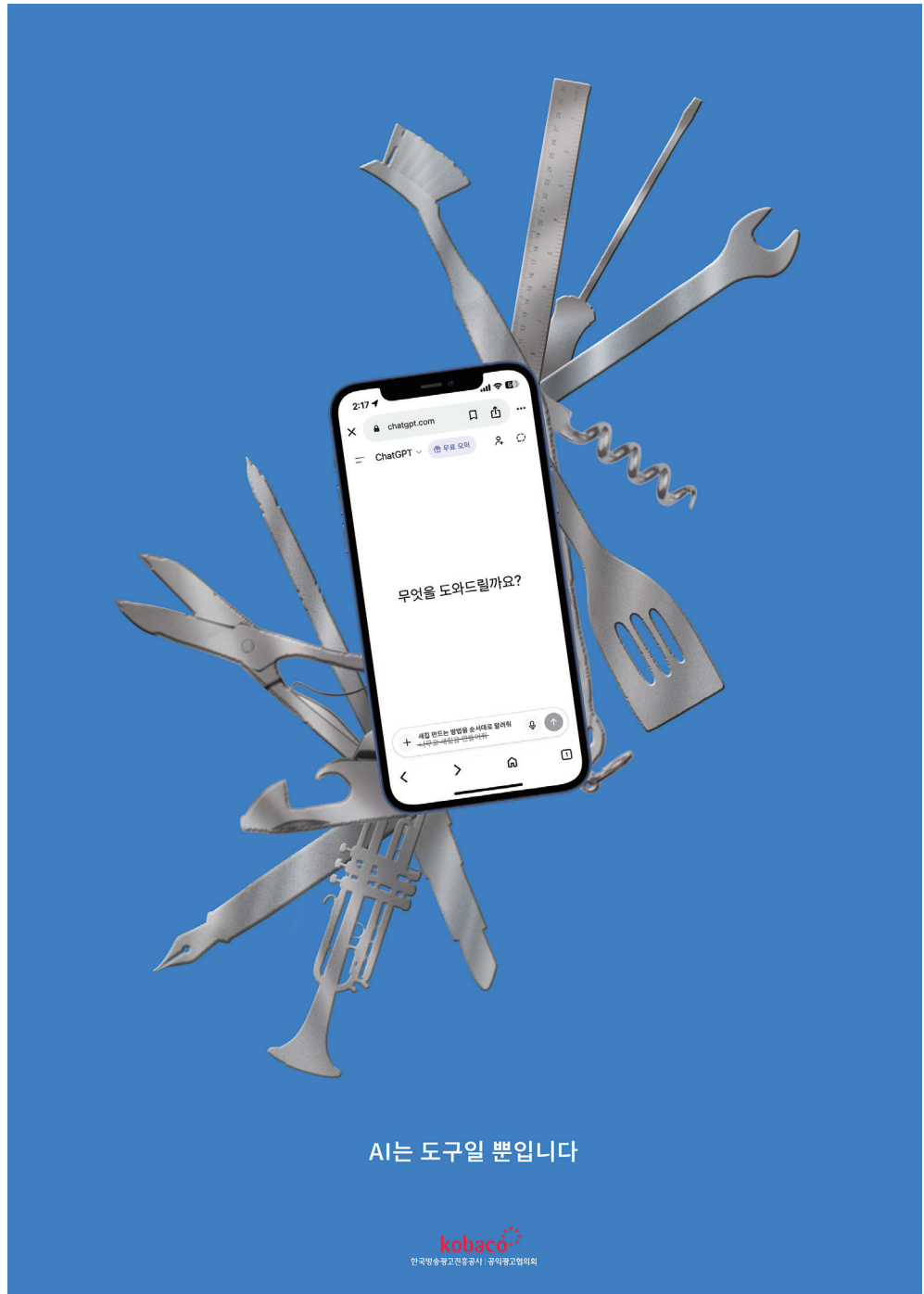
타인에 의해 조립되는 레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을 연출한다. 자신의 선택이라 믿어왔던 것들이 실은 누군가의 설계일 수 있음을 자각하는 과정을 담았다.



편집 부리더

오 지 은

Oh ji eun
ohjjeun3993@naver.com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AI를 도구로써 잘 이용하면 맥 가이버 칼과 같은 만능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표현했다. AI는 모든 걸 맡기며 의존하는 것이 아닌, 활용해야 하는 도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각성해야 한다.



편집 부리더

오 채 은

Oh chae eun
kitty0338@gmail.com



내 이름은 김AI

“김대리, 이번 아이디어 좋았어”라는 글과 함께 셔츠를 입고 사원증을 건 남성.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사원증에는 김AI라고 쓰여있다. 이는 앞으로 AI가 많은 관여를 할 것에 각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상 부리더

박 서 연

Park seo yeon
sbg44621@gmail.com

당신은 진짜를 구별하셨나요? 

Known by Category

사람들은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라고 생각한다. 진위여부에만 의존한 시선을 드러내며 이는 검증되지 않는 인식에 대한 각성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관객이 직접 참여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보는 체험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인식 습관을 자각하게 된다.



전시기획 부리더

유 예 소

Yu ye so

yuyeso3300@naver.com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사람을 MBTI라는 기준으로 포장해 진열함으로써 개인이 상품처럼 분류되고 소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성격은 16가지로 나눌 수 없지만 우리는 유형이 행동을 설명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MBTI를 답처럼 제시하며 이름 대신 MBTI유형이 정체성이 된 사회를 드러낸다.



곽 유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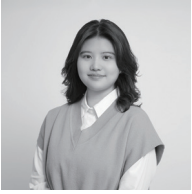
Kwak yu seop
dbtjq0605@naver.com

사라질 물질이 아닌, 영원히 남을 당신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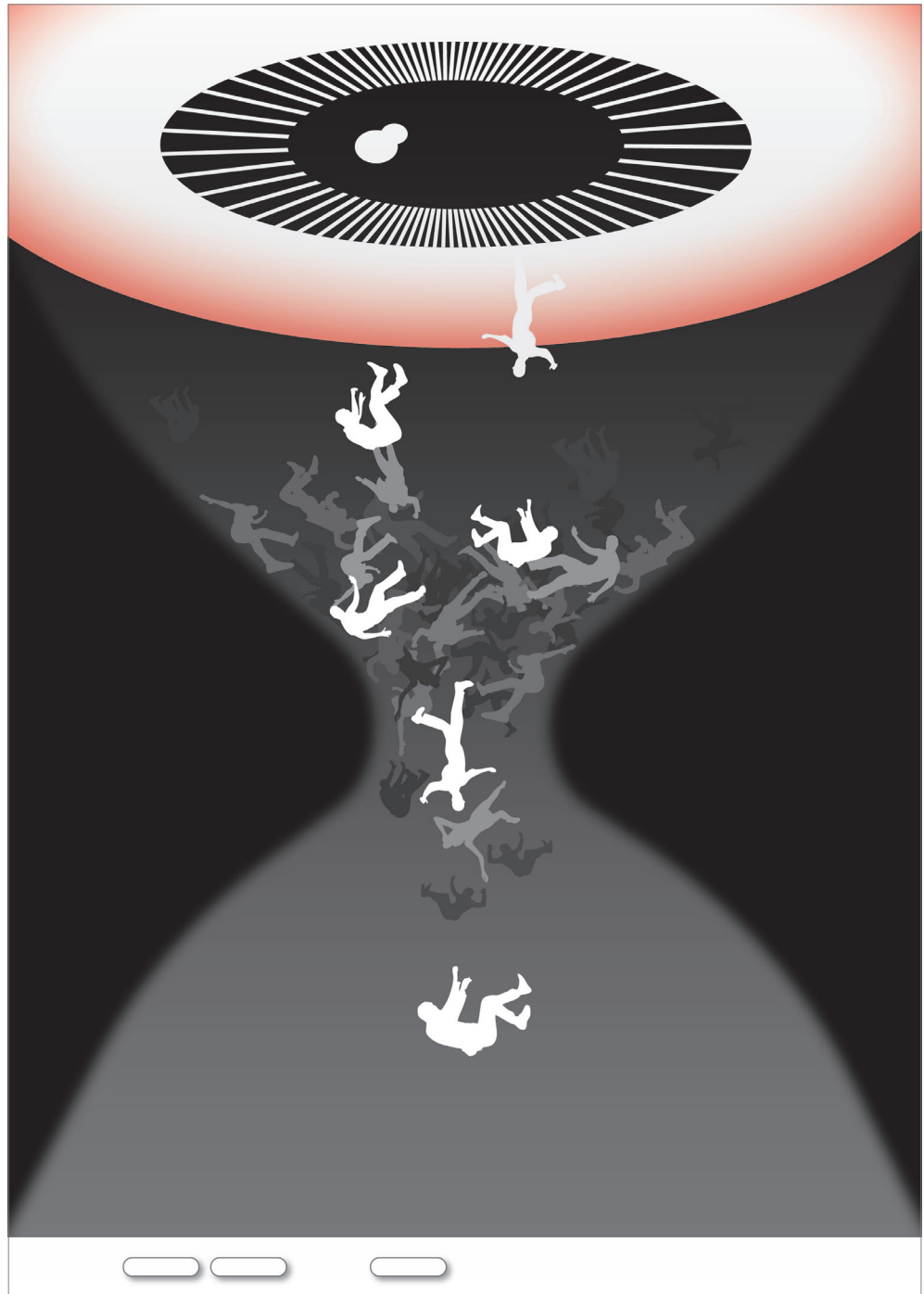
미래의 유물

우리가 깊이 집착하고 익숙하게 여기는 것은 언젠가 그 가치를 잃을 것이다. 당신은 언젠가 유물이 되어버릴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김 유 경

Kim yu gyung
jido1103@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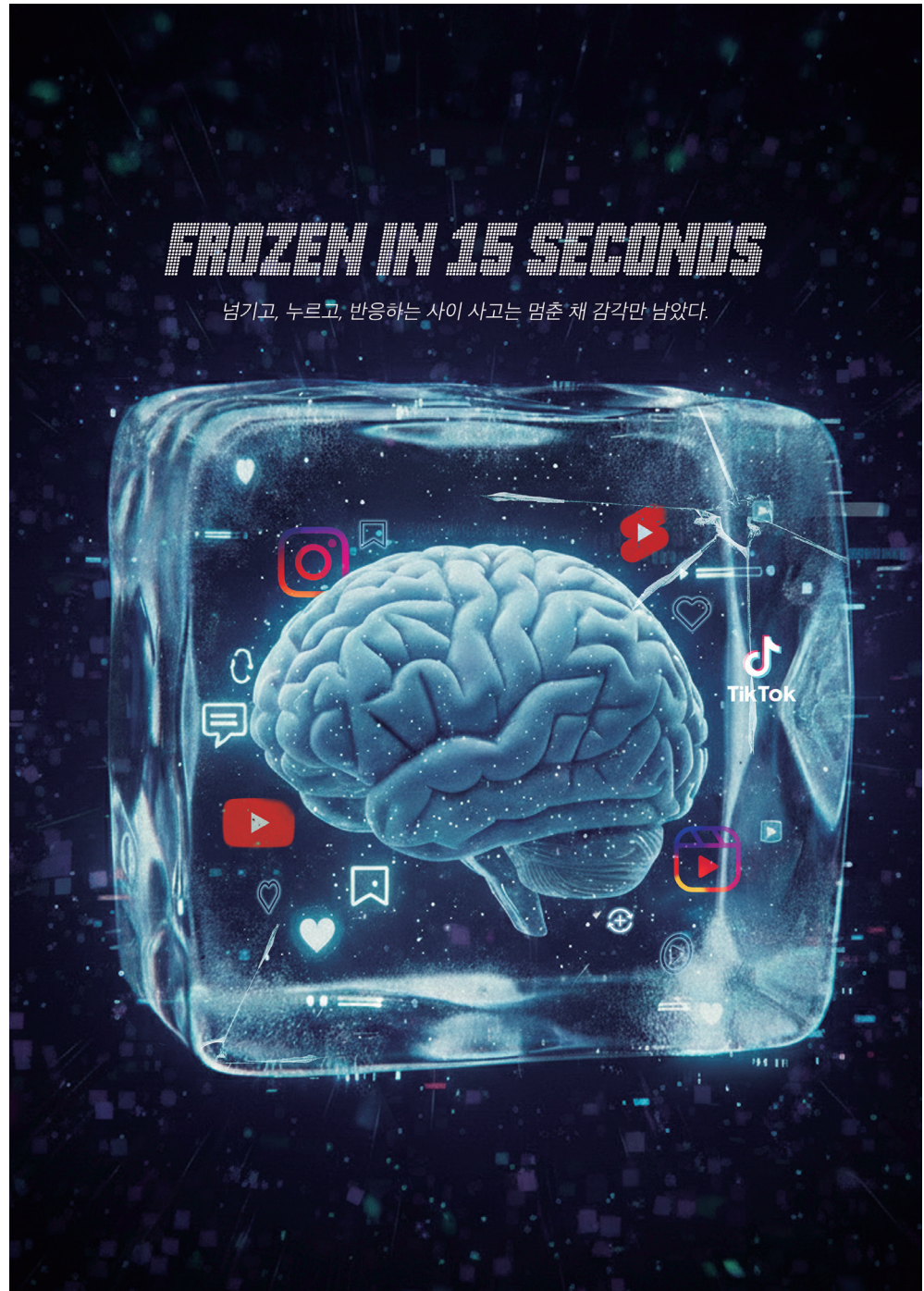
화면 속 무의식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대부분은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 화면을 바라보며 흘러보내는 시간을 자각하고 각성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눈이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화면의 빛을 모래시계 형태로 표현해 그 안의 모래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내며 무의식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유 나

Kim yu na
alsdb21@naver.com



UNFREEZE: 16초의 시작

15초 내외의 숏폼 미디어가 주는 즉각적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사고의 깊이를 잃고 무감각해진 현대인의 '뇌의 동면' 상태를 표현했다. 하지만 얼음 속에 멈춘 순간은 각성의 실패가 아니라, 15초 이후 다시 사고가 시작되는 '16초'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김 유 진

Kim yu jin
juliekim2109@gmail.com



현대사회의 파리지옥

파리지옥을 단순한 뜻이 아닌 매력적으로 설계된 구조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속 인물들을 위협에 잡히는 것이 아닌, 자극적인 환경에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쇼핑, 스마트폰,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상황에 빠진 현대인을 통해 우리가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유혹이 만든 환경 속에 있음을 풍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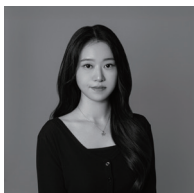
김은기

Kim eun gi
dmsrlsms0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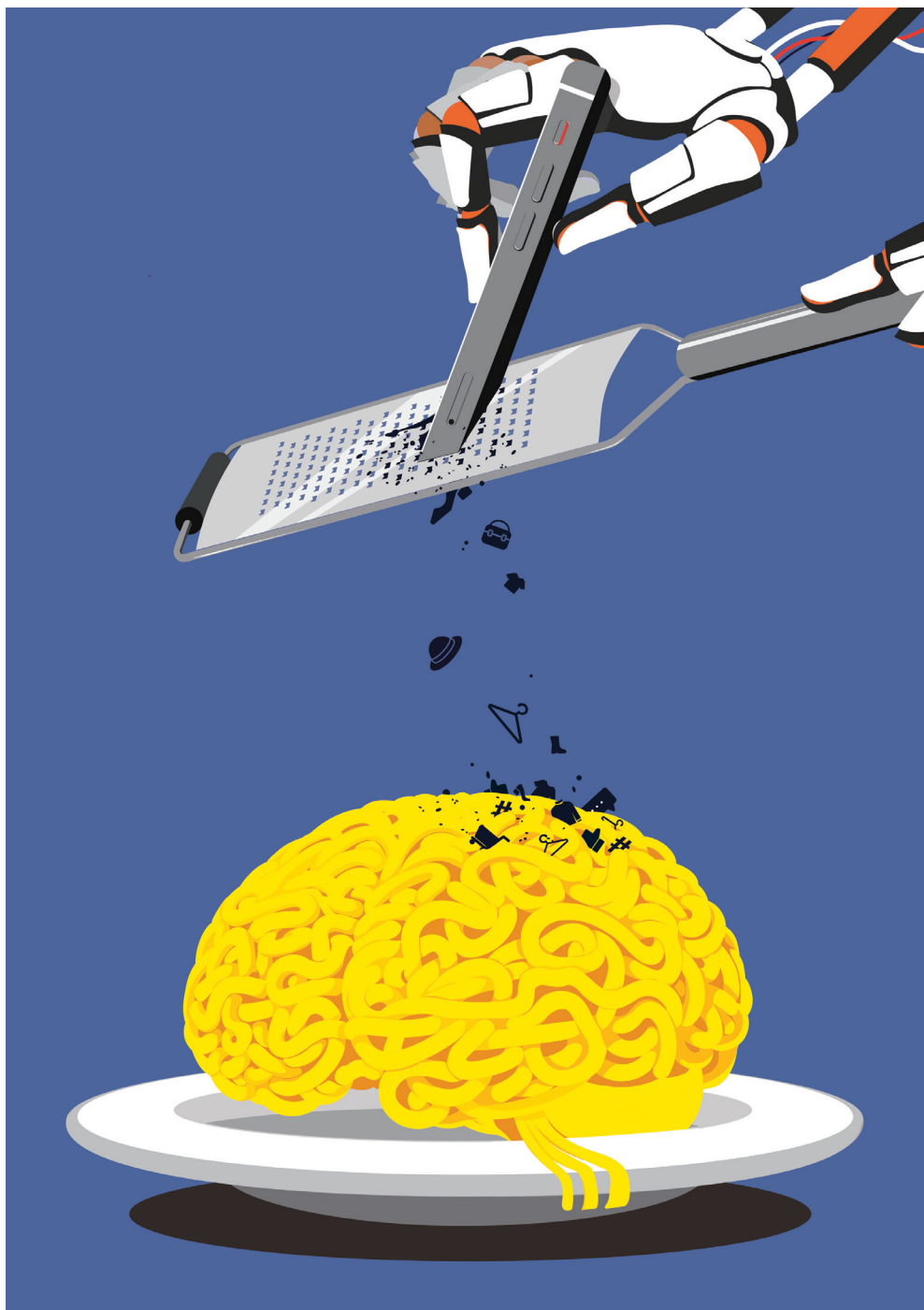
나를 직면할 때, 비로소 타올랐다.

강에 비친 것은 늘 외면해 온 나였다. 그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켜졌다. 누가 빌려준 빛이 아니기에, 더 오래—조용히 타오른다.



김 이 설

Kim lee seol
seol0k22l@gmail.com



당신이 원하는 음식인가요?

오늘날 우리는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정보를 추천받으며 보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플랫폼이 정한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입맛에 맞게 취향이 가공되어 버린다. 결국 이 스파게티는 내가 원해서 선택한 음식인지 의심하게 된다.



김 현 아

Kim hyeon a
ghyeona66@gmail.com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I

쉬

어가기

목표

알하기

작업하기

쉬

어가기

공부하기

목표

쉬

어가기

쉬

어가기

취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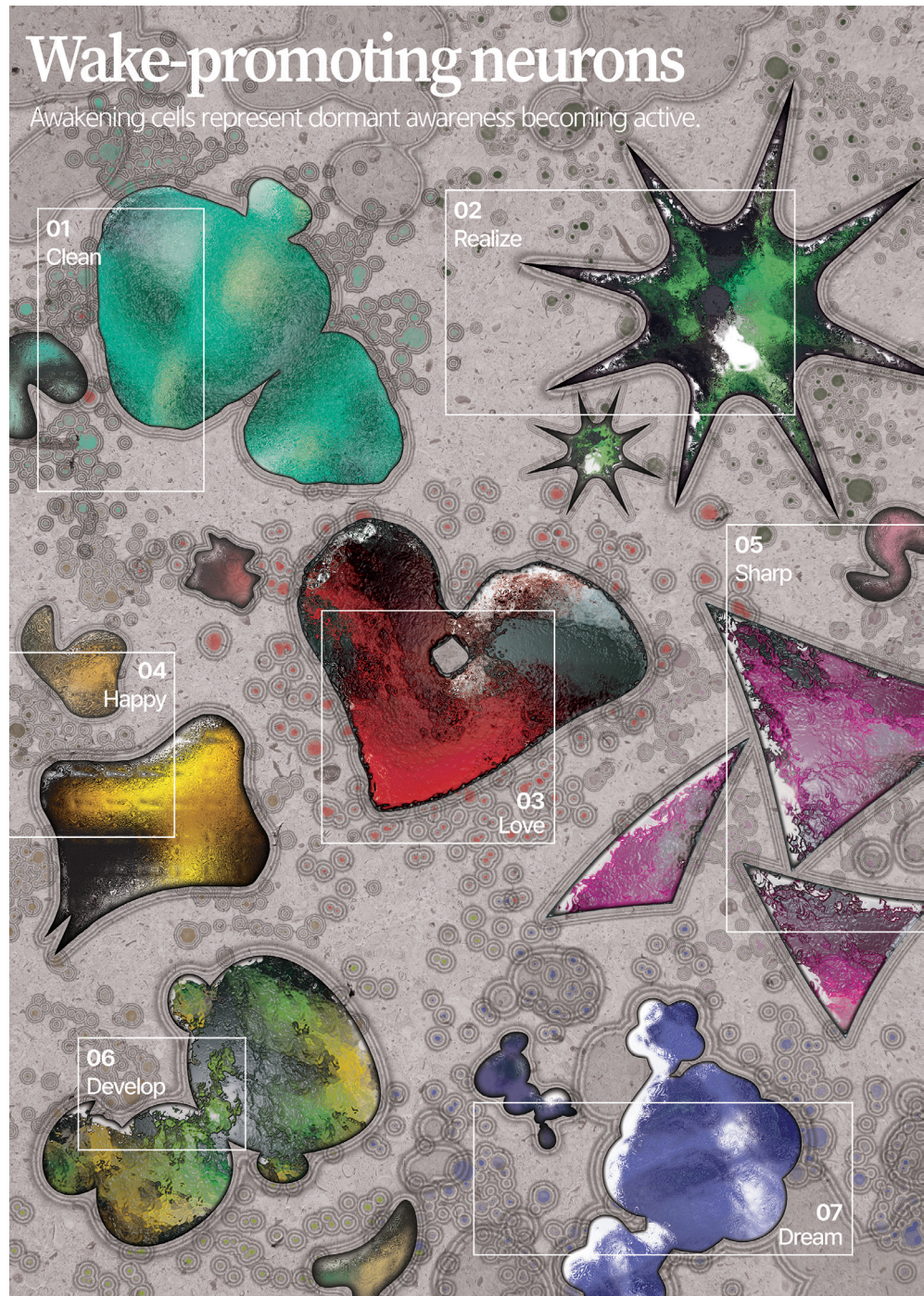
空白(공백)

놓치고 있는 공백을 마주하는 순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김현태

Kim hyun tae
daehopk2@naver.com



각성 세포

우리는 살아가며 문득 무언가를 깨닫거나 감정이 증폭되는 순간을 마주한다. 나는 그 순간을 '각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의 반응과 변화를 서로 다른 형태의 각성 세포로 형상화해 그래픽 포스터로 표현했다.



김 호 재

Kim ho jae
hojae1343@gmail.com



넘어: BEYOND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만으로 세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넘어'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숨어 있다. 아름다운 모습 뒤에 추악한 내면이 있을 수도 있으며, 추한 모습 뒤에 선하고 아름다운 내면이 있을 수도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안의 모습까지 들여다보자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김 희 은

Kim hui eun
kheun610@gmail.com



ON

'내면의 불을 커다'라는 주제로 작업했다. 마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씨앗이 자라는 형태의 필라멘트로 표현했다.



박성빈

Park sung bin
yuiop0864@naver.com



대답

울리고 있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 수화기이다. 각성을 깨우는 신호는 계속 오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고 신호는 계속 오고 있으니 받아보자는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를 그래피티 아트로 표현하였다.



박 송 이

Park song i
wer2166@naver.com



취향 알고리즘

동일한 상품들 속에서 특정 상품이 선택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취향이라고 믿었던 소비가 사실은 알고리즘에 의해만 들어졌음을 드러낸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는 순간, 뒤에 숨겨진 시스템을 인식하게 되는 각성의 순간을 표현한다.



박 영 채

Park yeong chae
1208qkrudco@naver.com



현실세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자신이 서 있는 공간의 정체를 인식하는 순간을 담고 있다. 현실 세계라고 믿고 걸어난 길이 사실은 스마트폰 속 구조였음을 깨닫는 장면을 통해, 스마트폰에 의해 왜곡된 일상과 그에 대한 각성을 표현하였다.



박준혁

Park jun hyuok
pq098mok@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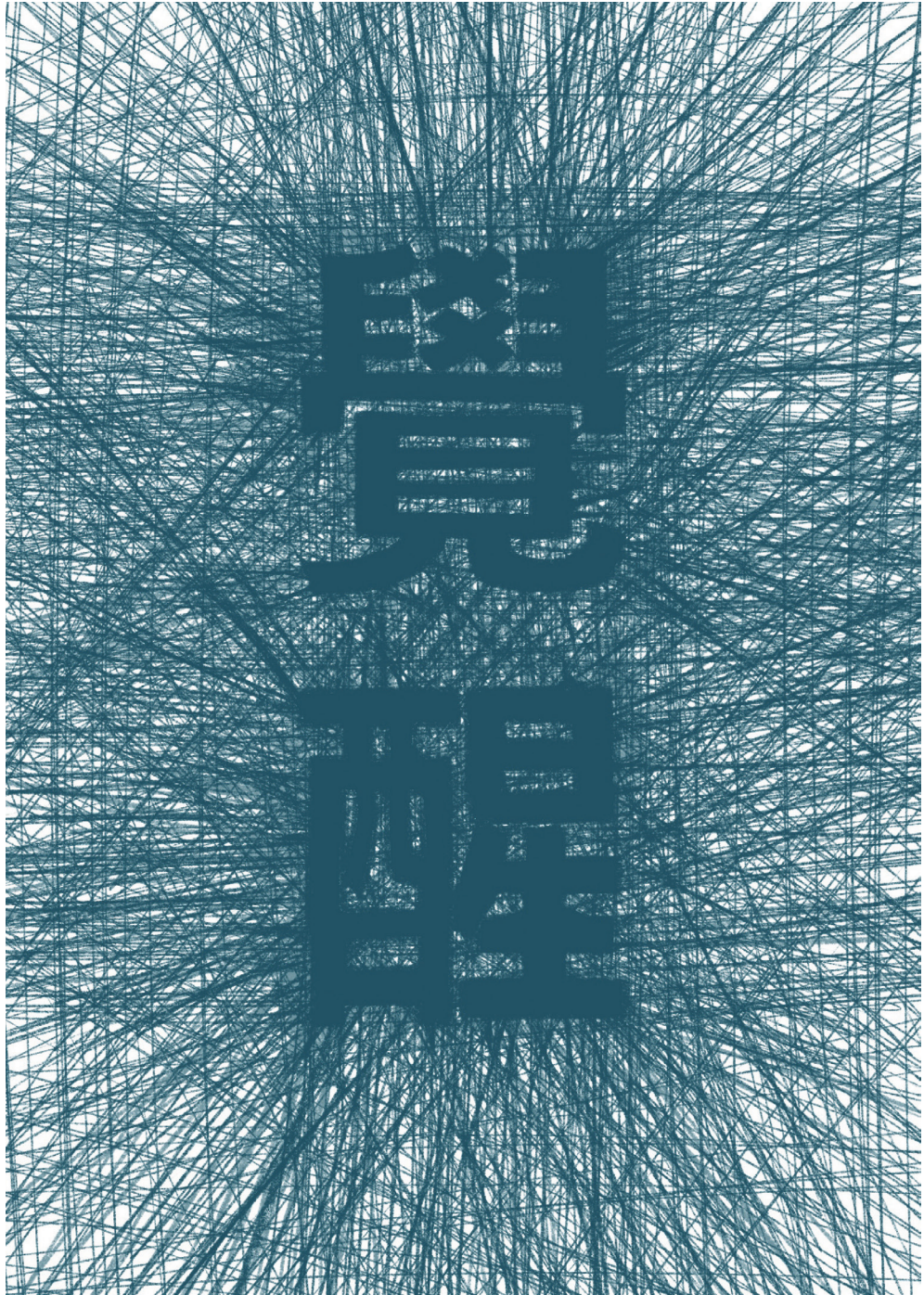
썸네일

신문이 사장되고 언론이 조회수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조회수 경쟁에 썸네일 이미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자극적인 이미지를 필두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여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정보를 왜곡하는 것보다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 이를 인터넷 뉴스 기사를 신문으로, 썸네일을 클라주 형식으로 치환해 표현했다.



배종우

Bae jong woo
qowhddn7076@naver.com



覺醒

각성(覺醒)을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솟구치는 실천적 의지로 정의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수만 개의 거친 선들은 각성이 결코 매끄러운 과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신 가 경

Sin ga kyeong
gakyong513@naver.com



과잉소비

우리는 소비를 필요에 따른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쇼핑으로 물건은 점점 쌓여 간다. 작품 속 바코드는 소비 시스템을 상징하며, 커튼처럼 열린 틈 사이로 다양한 소비의 흔적들이 드러난다. 쌓여 있는 상품들은 멈추지 않는 소비의 결과를 보여 주며, 우리가 일상에서 이어 온 소비의 흐름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신 응 재

Shin wong jae
tisdndwo14@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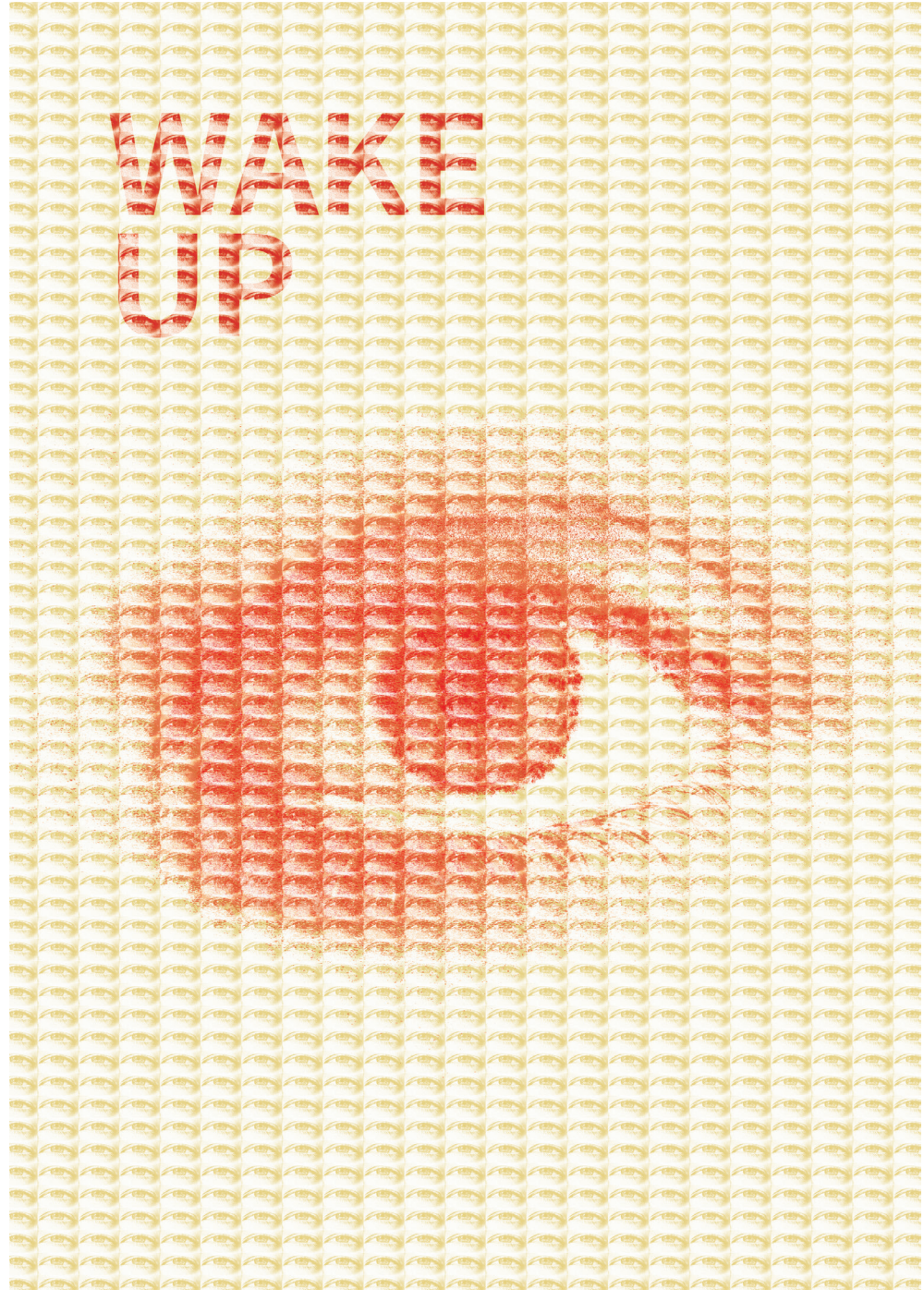
거북목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고개 숙인 자세로 보낸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걷고, 이동하고, 기다린다. 이 반복되는 자세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체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 작품은 못의 형태를 통해 현대인의 '거북목'을 은유한다.



오 수 빈

Oh su bin
subi0090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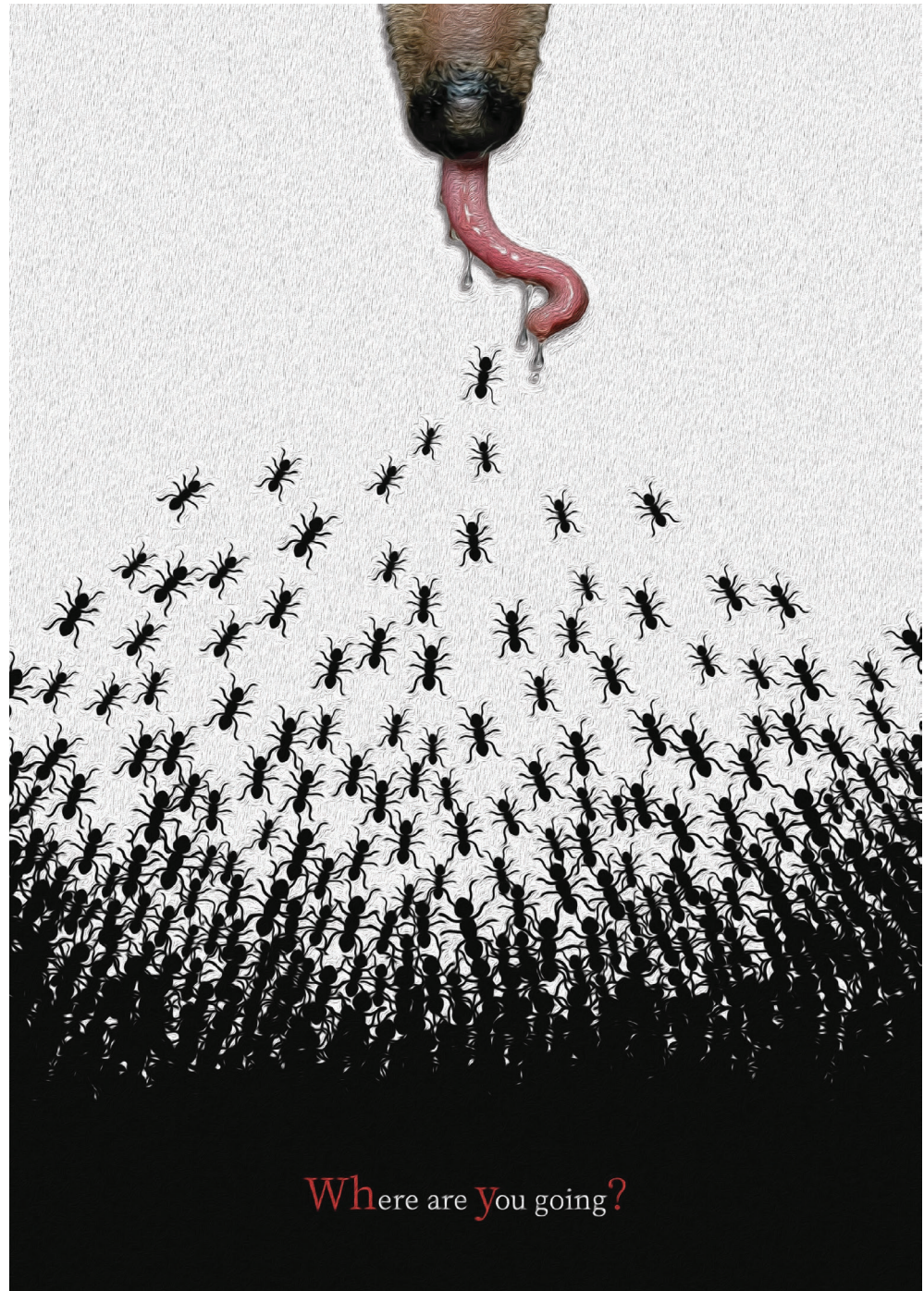
WAKE UP

꿈속에서 간직하던 이상과 가치가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서서히 흐려지는 장면을 담았다. 반복되는 눈의 패턴과 붉게 번지는 형상은 깨어남과 함께 밀려오는 감정의 변화를 상징한다. 붙잡고 싶던 행복이 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오 은 채

Oh eun chae
oocc329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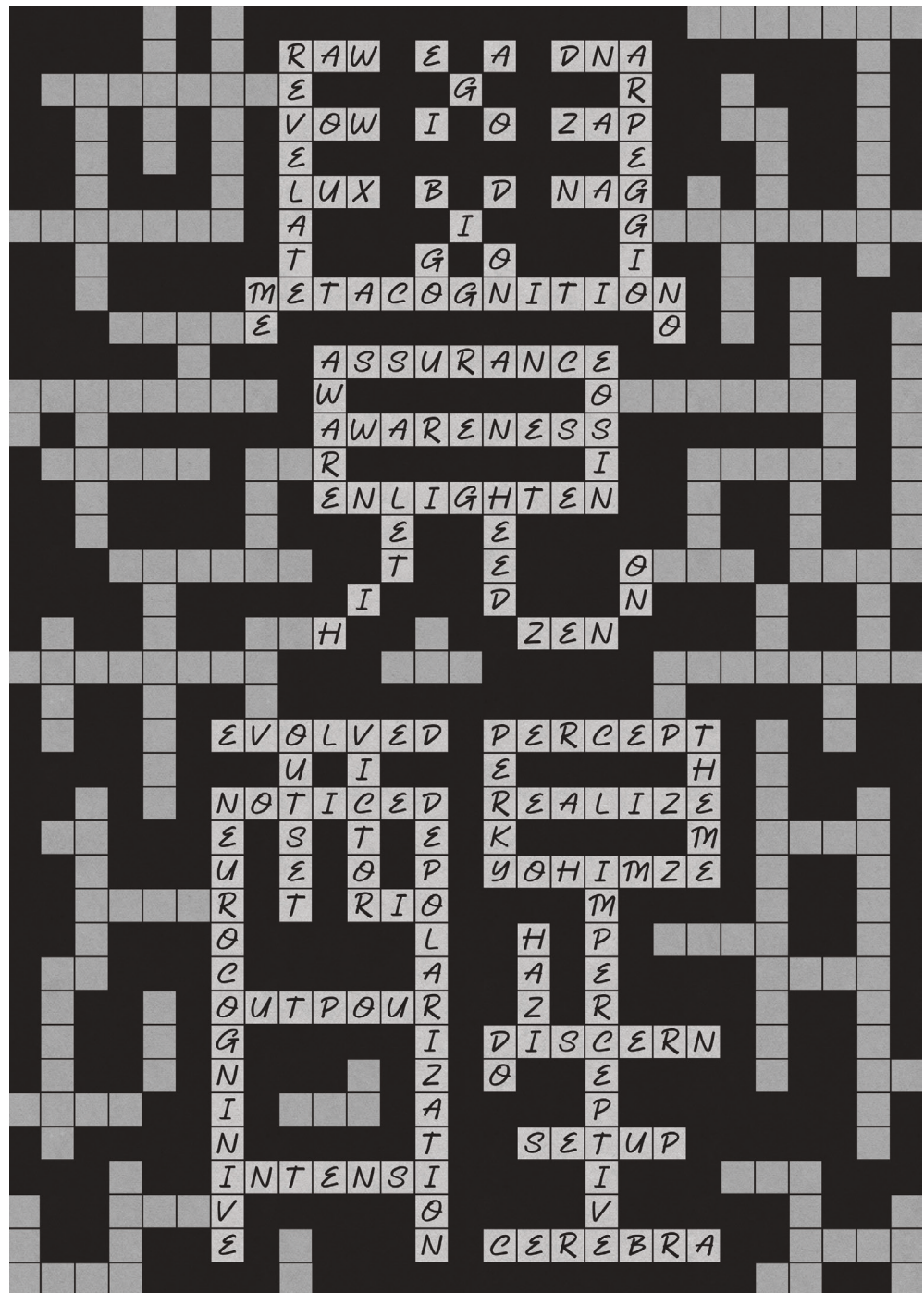
Where are you going?

개미는 이유를 묻지 않고 앞선 존재를 따라 움직이는 집단적 습성을 지닌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Where are you going?'이라는 질문 속에 숨겨진 'Why'를 드러내며, 우리가 왜 그 방향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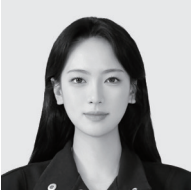
유 경 주

You kyung joo
kyun900@naver.com



빈칸 이후

크로스 워드 형식으로 중앙의 빈칸을 '깨달음 각(覺)'과 '깨 성(醒)'의 형태로 구성하고, 그 안에 각성과 관련된 영단어들을 배치하여 인식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각성의 과정을 표현하였다.



유 희 연

Ryu hee yeon
djnshsi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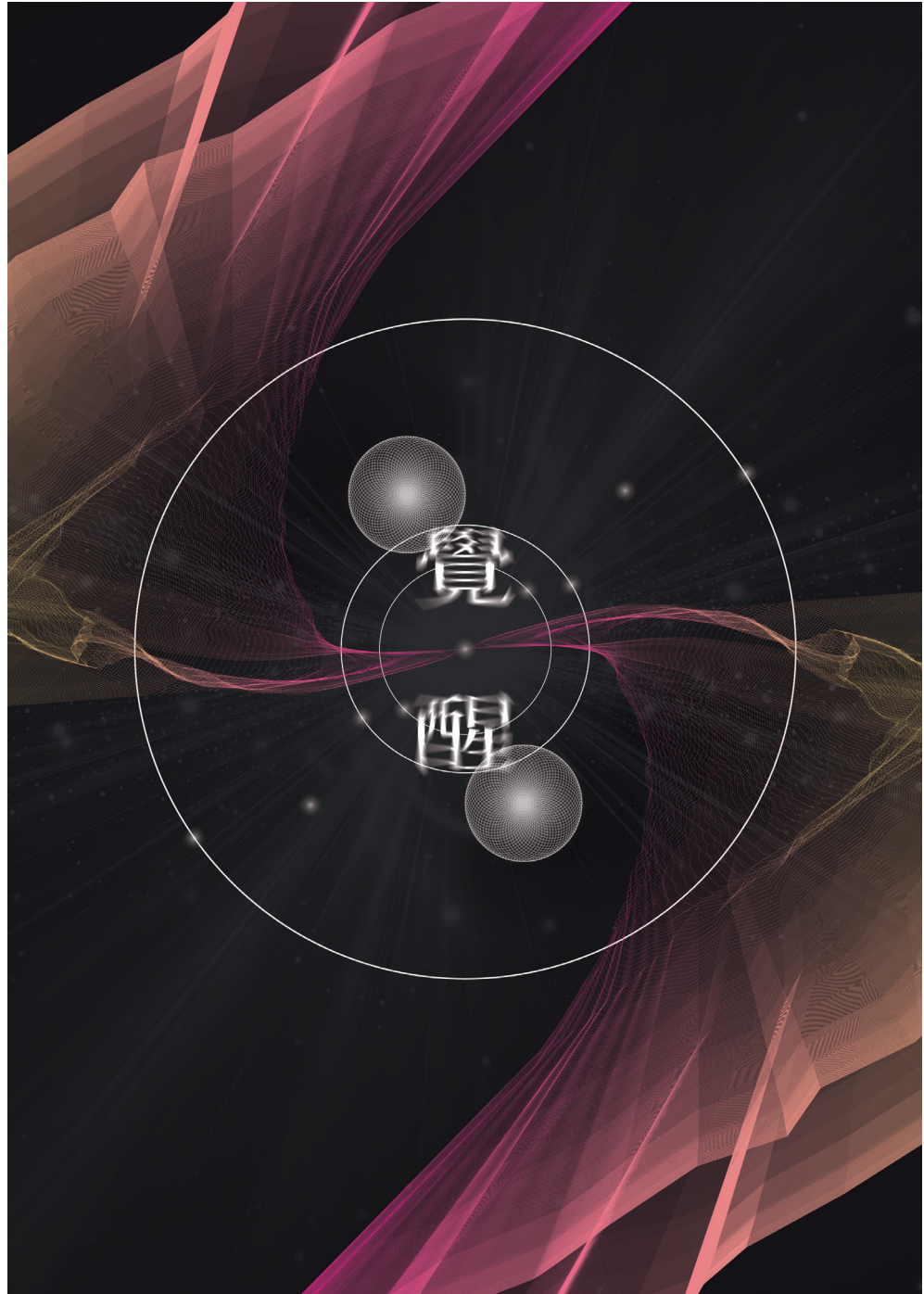
자각, 고립

“각성은 고립과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그림으로 그려 작업했다.



이 수 환

Lee su hwan
dltngks000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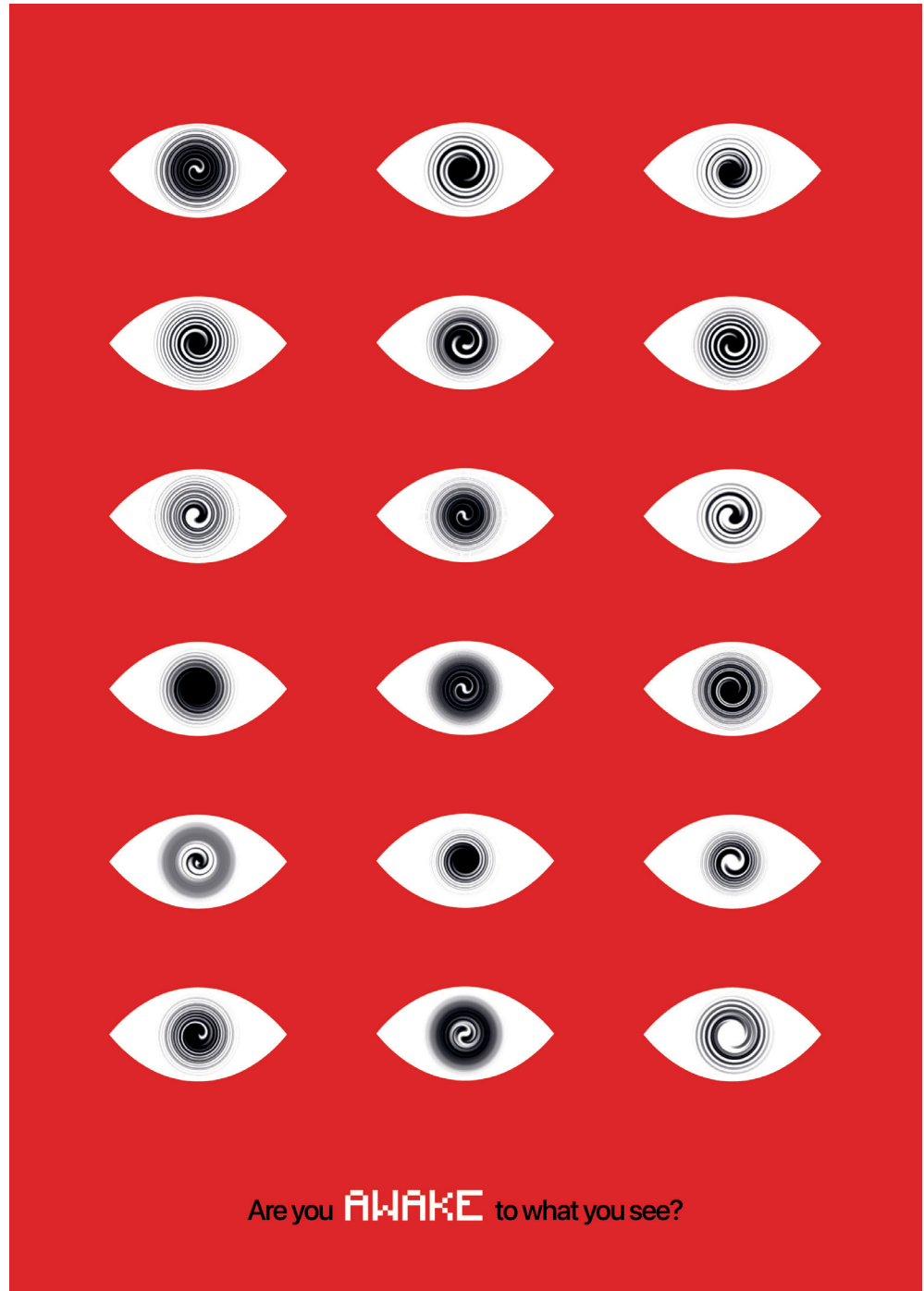
내면

이 작품은 '각성'을 태극의 구조를 통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균형을 찾고,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내면이 각성하는 과정을 시각화하였다. 정신적인 각성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 드러나며, 각성을 거창한 변화가 아닌 자신의 중심을 마주하는 고요한 순간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이 여 진

Lee yeo jin
dlduws1021@naver.com



Motion Poster

인식의 전환

우리는 익숙해진 현실 속에서 하나의 인식에 머무른 채 살아간다. 전환을 이끄는 움직임은 고정된 시야를 흔들고, 그 틈에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된다. 이것이 각성의 순간이다. 당신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윤진

Lee yun jin
yjji647311@naver.com

An unattainable dream



Faced with the price gap between memories and the 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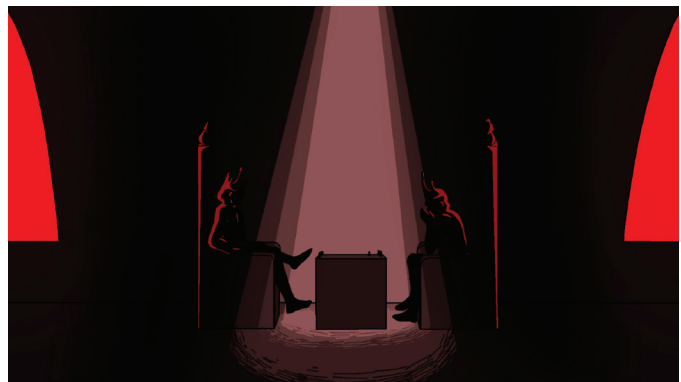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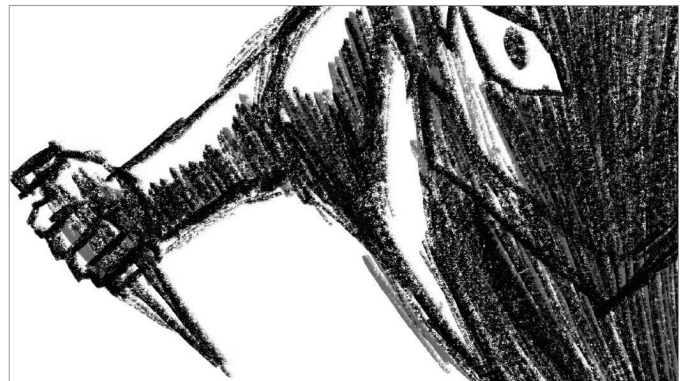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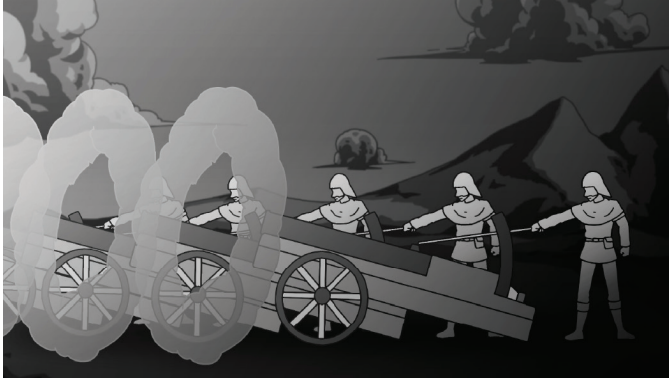
시간이 올린 가격

어릴 적 몇 백 원이면 쉽게 살 수 있었던 음식들과 물건들은 이제 천 원을 훌쩍 넘는다. 추억 속 기억과 현재의 가격 차이를 마주하며, 자연스럽게 지나쳐 왔던 물가 상승의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이 호 윤

Lee ho yun
dfsvggd@gmail.com



Animation Video

<f3>

세상에 우리가 독립된 주체로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프레임링 질로 갈등을 빚어내어 대중의 집결을 막고, 양산된 증오와 분노를 자신들의 이익대로 사용한다. 전쟁, 이념적 갈등, 혐오가 권력자의 이익으로 이용되는 판 위에서 각 개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더는 판 위에서 놀아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의 각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임 정 빈

Im jung vin
imjungbin@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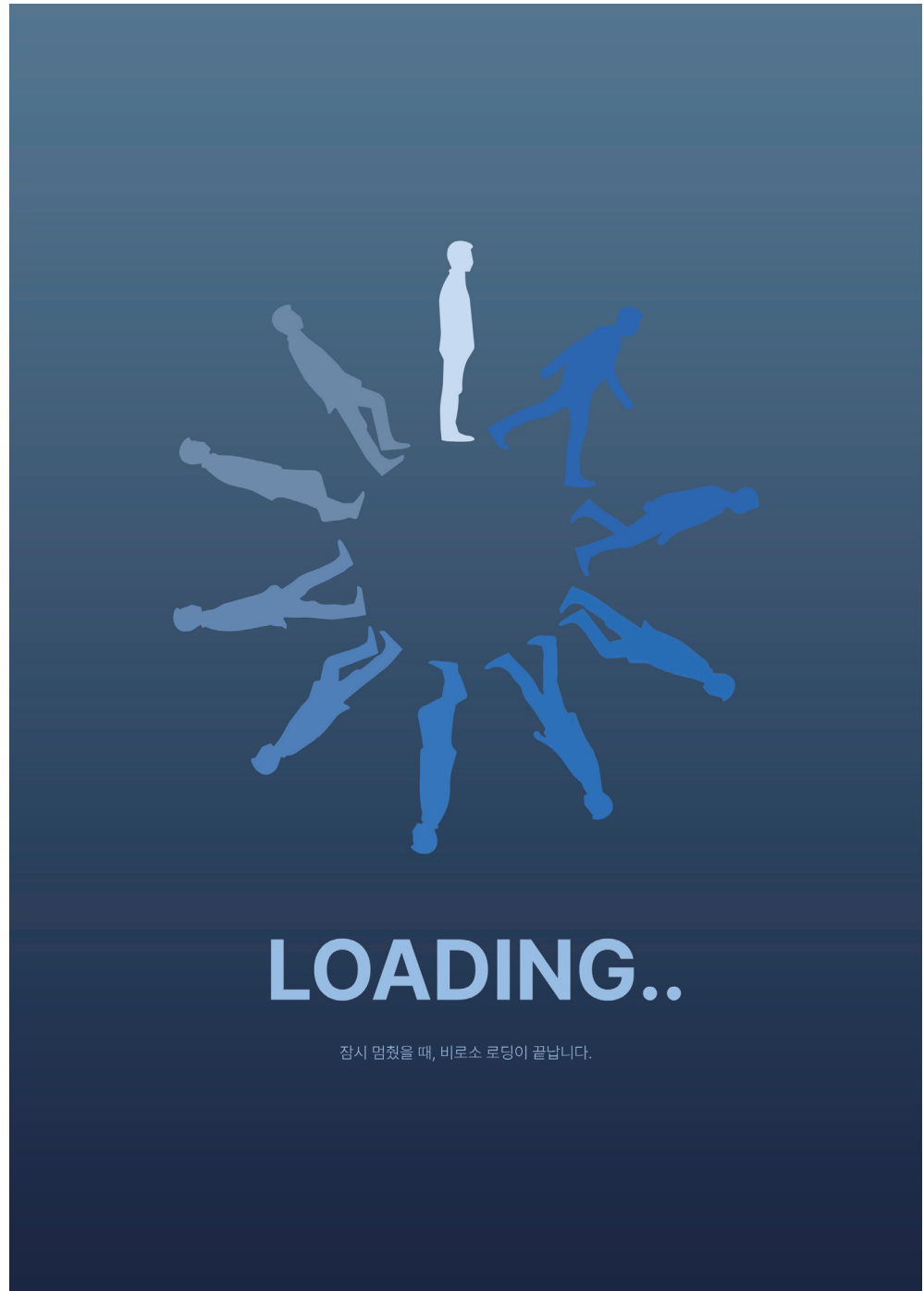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손

AI로 생성된 가짜 뉴스가 인간의 판단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마리오네트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이다. 스마트폰 화면 속 뉴스는 실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AI의 손이 정보를 조종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정보의 진위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AI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임 채 현

Lim chae hyeon
l56077825@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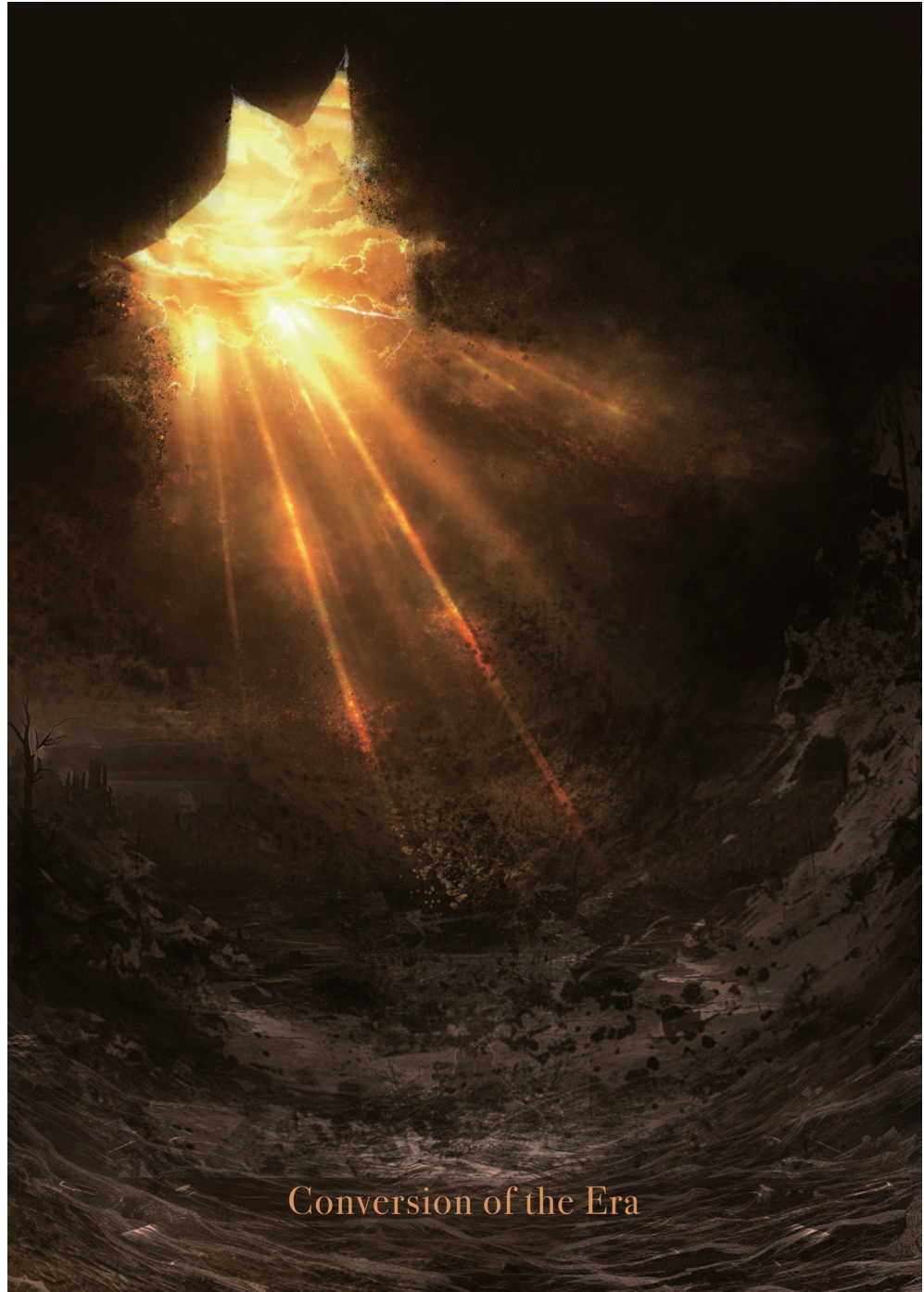
LOADING..

각성은 당연하게 해 온 습관을 멈추고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깨달음이다. 스마트폰 속 로딩을 무의미하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의 무의식을 '걸고 있는 실루엣'으로 형상화했고, 화면 속 로딩이 멈추고, 비로소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 찰나. 그 순간이 디지털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실을 느끼게 되는 진정한 각성의 시작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조수현

Jo su hyeon
naomi0829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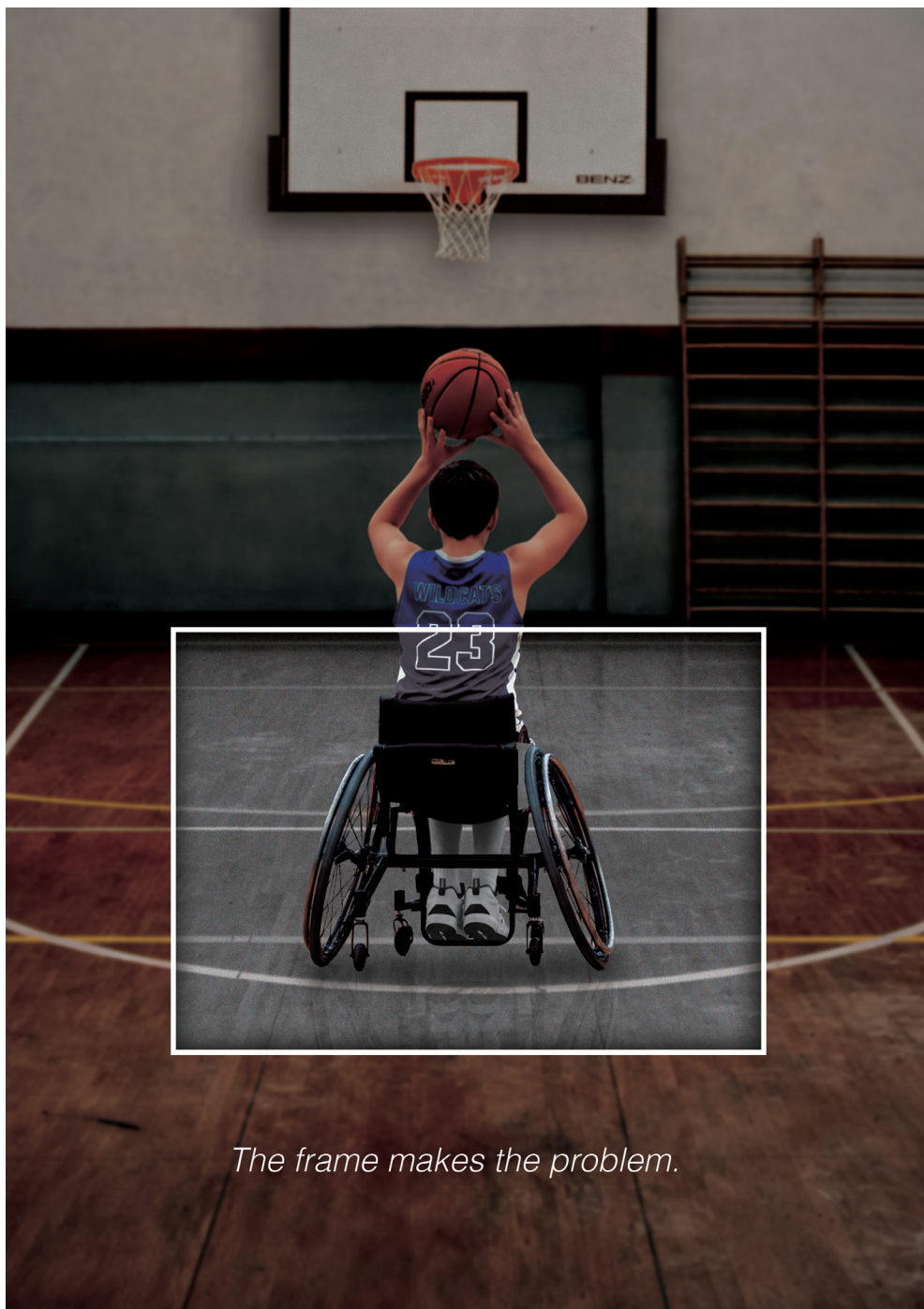
Conversion of the Era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대는 언제나 환난과 혼란을 겪는다. 기존의 질서는 흔들리고, 사회는 방향을 잃은 채 불안정한 상태에 머문다. 그러나 이 혼란은 붕괴가 아닌, 변화를 위한 필연적인 통증이다. 빛은 균열을 통해 나타나 듯, 각성은 위기의 순간에 시작된다. 이 작품은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조 윤 재

Cho yun jae
cyj3086@gmail.com



FRAMING :

농구선수지만 우리 사회가 갖는 고정관념 즉, 프레임은 휠체어만을 가리킨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였다.



채 서 현

Chae seo hyun
cotj4628@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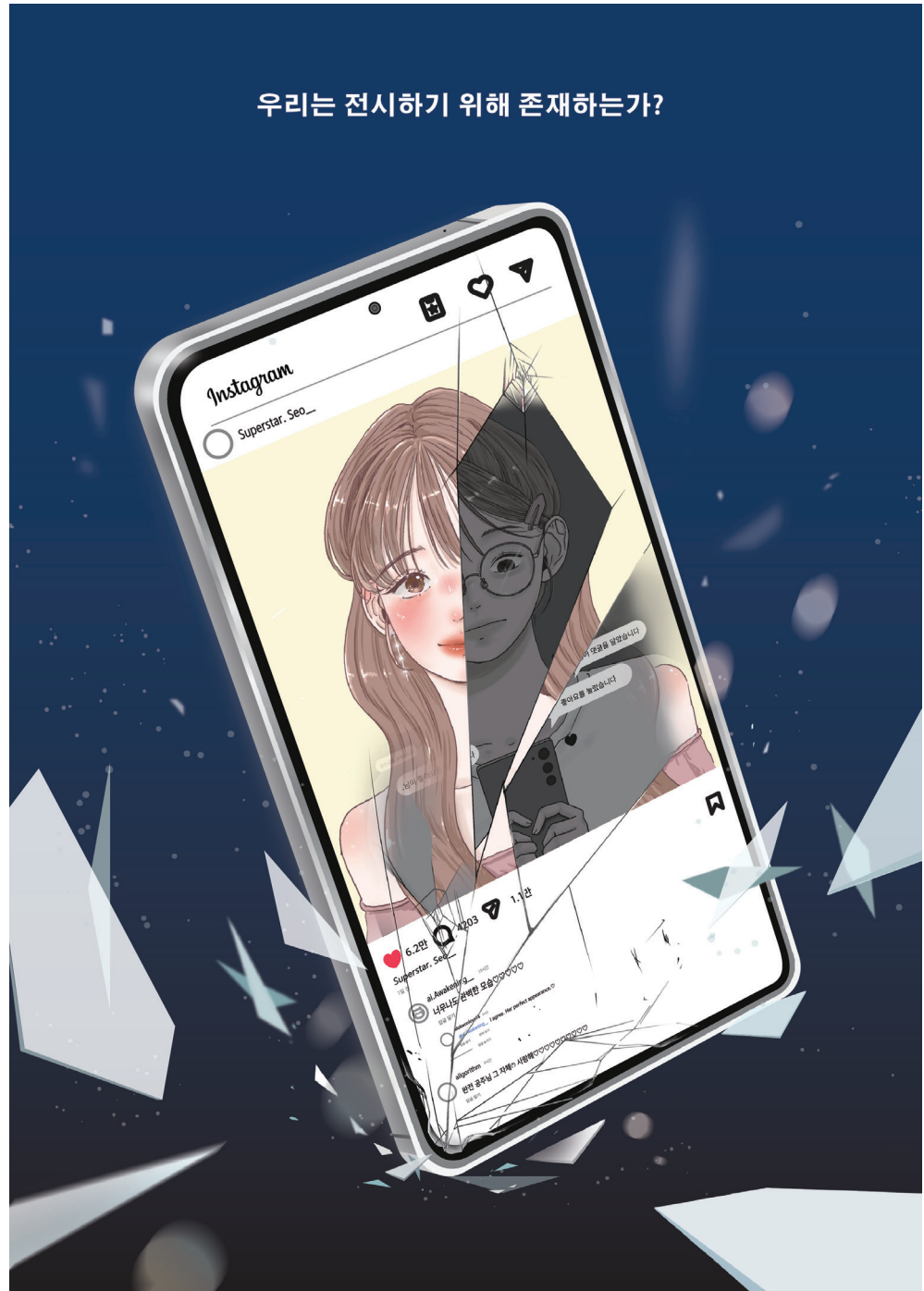
Algorithm : The Selected Path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정교해진다. 뫼비우스 띠 형태의 트랙 위에서 핸드폰만 바라본 채 걷거나 달리는 인물들은 알고리즘이 설계한 경로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재생 아이콘을 닮은 구조는 이러한 선택의 순환을 드러내며, 그 반복을 인식하는 순간의 각성을 표현한다.



강민서

Kang min seo
atelierone@naver.com



우리는 전시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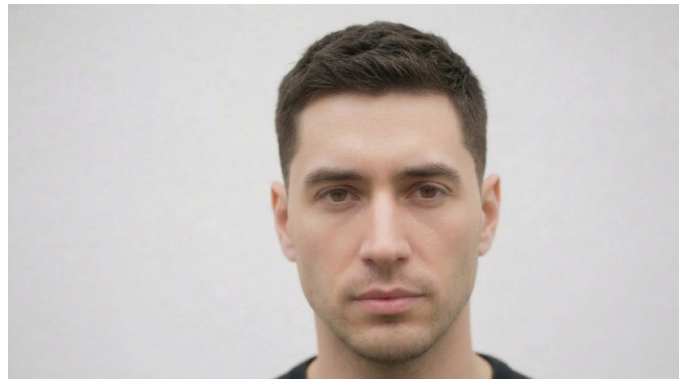
필터 뒤 마모

우리는 SNS라는 가상 세계에서 필터를 통해 완벽히 보정된 자아를 전시한다. 이 작품은 추락과 균열이라는 물리적 사고를 통해 화려한 가상 속에 감춰진 내면의 마모를 포착한다. 깨진 틈 사이로 드러난 인물은 타인의 시선과 좋아요라는 숫자에 덮여버린 우리의 민낯을 담았다. 당신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가?



강 연 옥

Kang yeon uk
kangyw1019@gmail.com



AI Visual Video

이제 그만 봐야지 (Repeat)

우리는 무의식 중에 스포츠 콘텐츠를 의식하지 못한 채 몇 시간이고 보다가 안 보겠다고 다짐하기를 반복한다. 또 최근 급격한 AI의 발전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두 문제점을 본 영상 속에 AI 생성 영상과 실제 사진을 섞고, 주인공의 짧은 각성을 표현하여 보는 이가 주제를 곱씹어 볼 수 있게 만들고자 했다.



강 은 비

Kang eun bi
eunbi2476002@naver.com

무의식의 감옥, 알고리즘



무의식마저 데이터가 된 사회, 당신의 생각은 누구의 것인가요?.

알고리즘 감옥

미디어 시대,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좋아할 만한' 정보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 그 결과 인식의 폭은 좁아지고, 알고리즘이 만든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감옥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권 구 현

Gwon gu hyeon
guhyunkwon322@gmail.com



해석의 방향

이 작품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해석의 차이'를 시각화한 개인 작업이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함을 표현했다. 목표는 같지만, 해석의 방향이 곧 결과를 결정한다.



권 세 라

Kwon se ra
jjaas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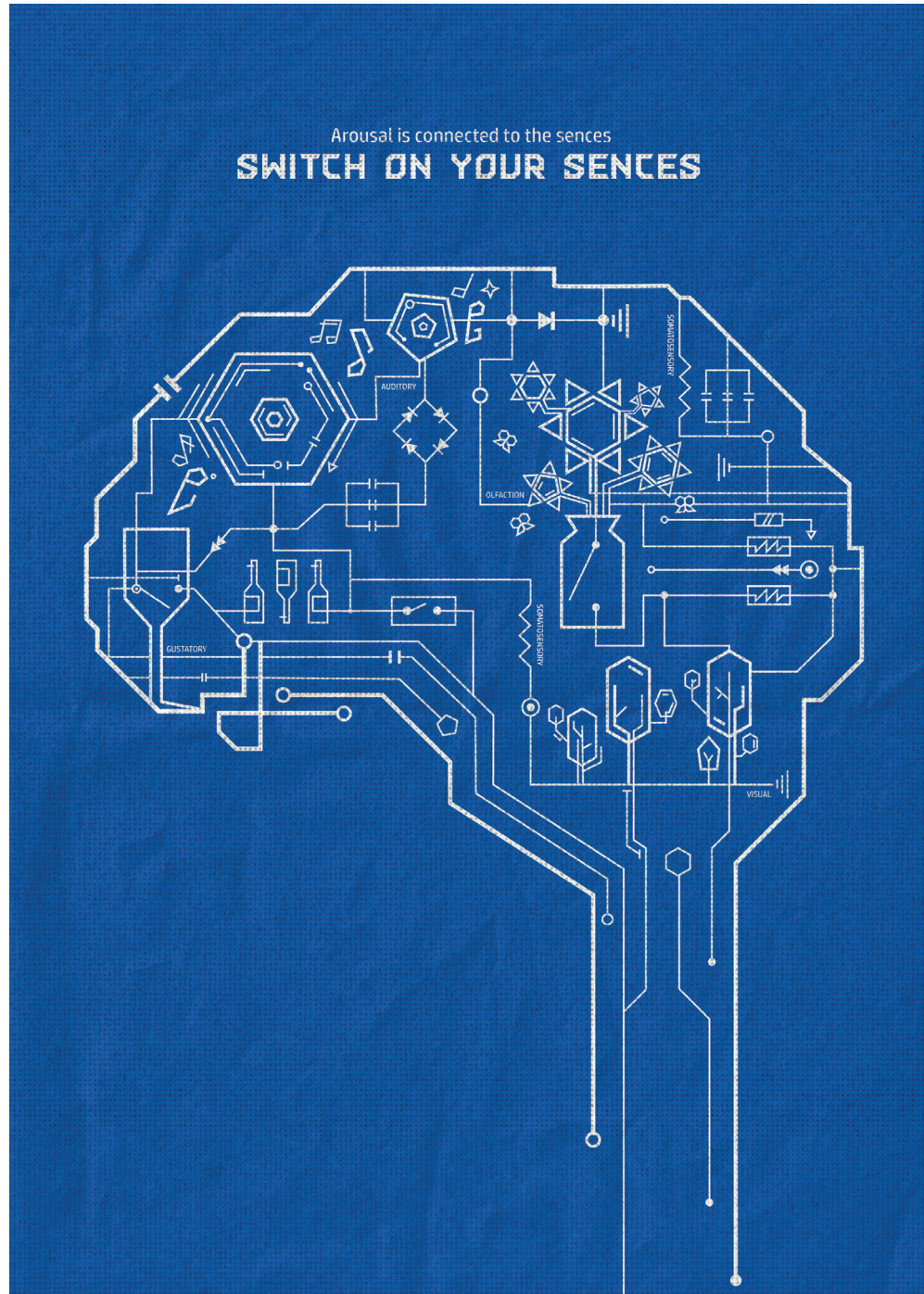
길 잃은 정보

숫폼에 빠져 정보를 해석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사고에 대한 작품이다. 귀로 들리는 소리(정보)를 제대로 사고하지 못한 채 머릿 속에 받아들여 길 잃은 모습을 담아내었다.



김민주

Kim min ju
pyodo101004@gmail.com



AROUSAL DIAGRAM

감각을 통해 각성에 이르는 순간을 전자회로의 구조로 시각화하였다. 외부 자극이 감각을 통과해 신경 신호처럼 흐르고, 회로를 따라 연결되며 점차 깨어나는 상태를 형상화했다. 인간의 감각과 신경 작용을 기술적 언어로 번역해 각성의 과정을 표현했다.



김민주

Kim min ju
minjukim5@naver.com



∞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심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그로 인해 성장이 멈춘 상태로 지내곤 한다. 이 포스터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복되는 '작심삼일'에서 벗어나 진정한 각성의 계기를 얻길 바란다.



김 서 진

Kim seo jin
jaemsu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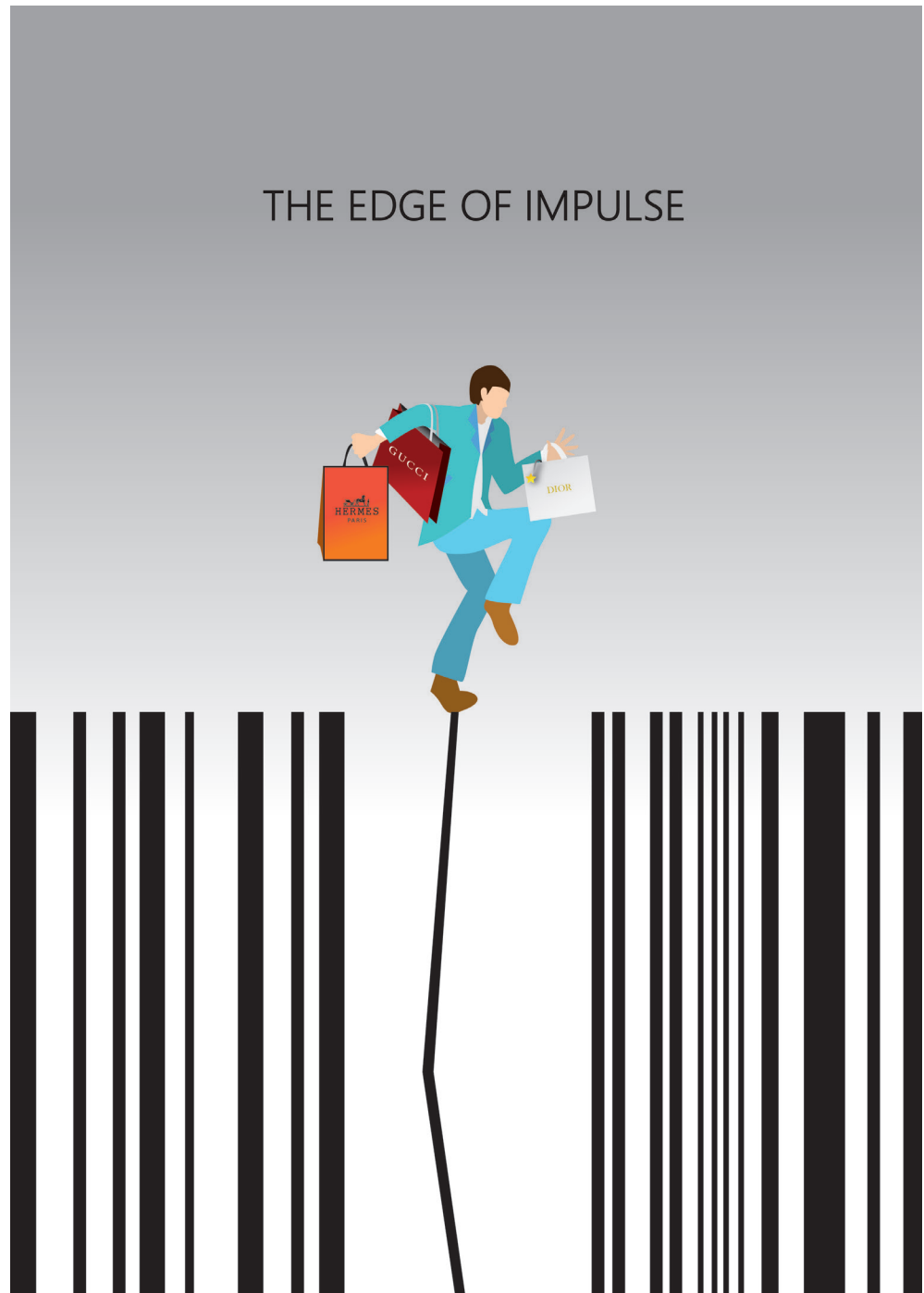
팝콘 브레인

우리는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놓여있다. AI의 과도한 사용이 인간에게 가져올 변화와 영향을 팝콘 브레인이라는 형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김 아 현

Kim ah hyeon
ahh040203@naver.com



충동의 끝에서

이 작품은 충동적인 소비가 반복할수록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 비싼 물건을 들고 바코드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은 과소비의 끝에서 균형을 잃어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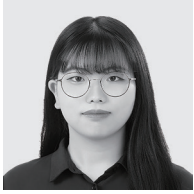
김 유 진

Kim yu jin
yujinkim098@gmail.com



고립의 밝기

모두가 아래를 보는 순간, 한 사람만이 위를 본다. 고립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일이다.



나 해 진

Na hae jin
heajin5989@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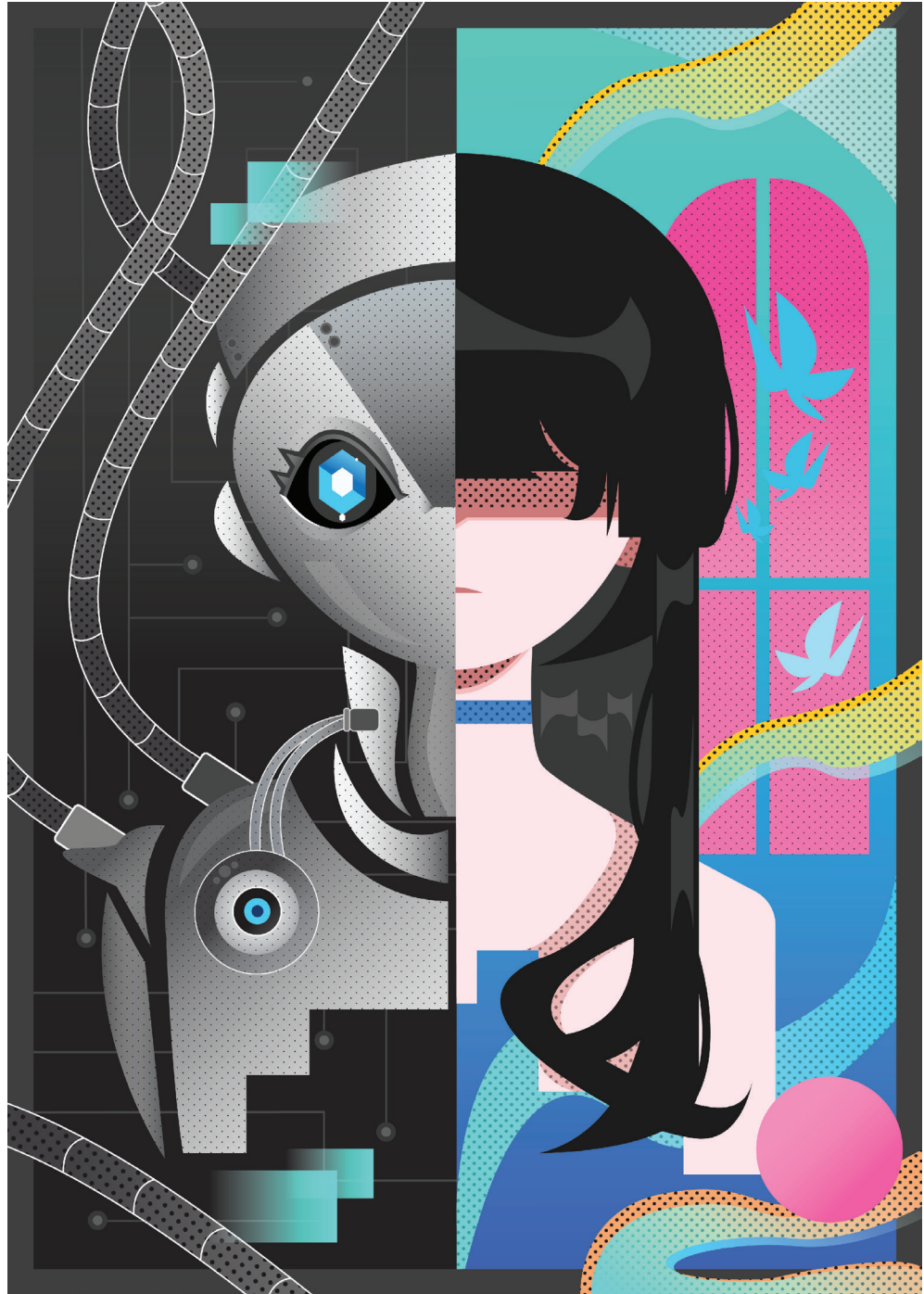
요약해줘

인공지능 사용이 당연해진 요즘, 우리는 '요약해줘'라는 프롬프트 한 줄이면 다량의 정보를 직접 읽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편리함 속에 결코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함수 박스를 이용해 표현했다.



문 가 은

Moon ga eun
mge417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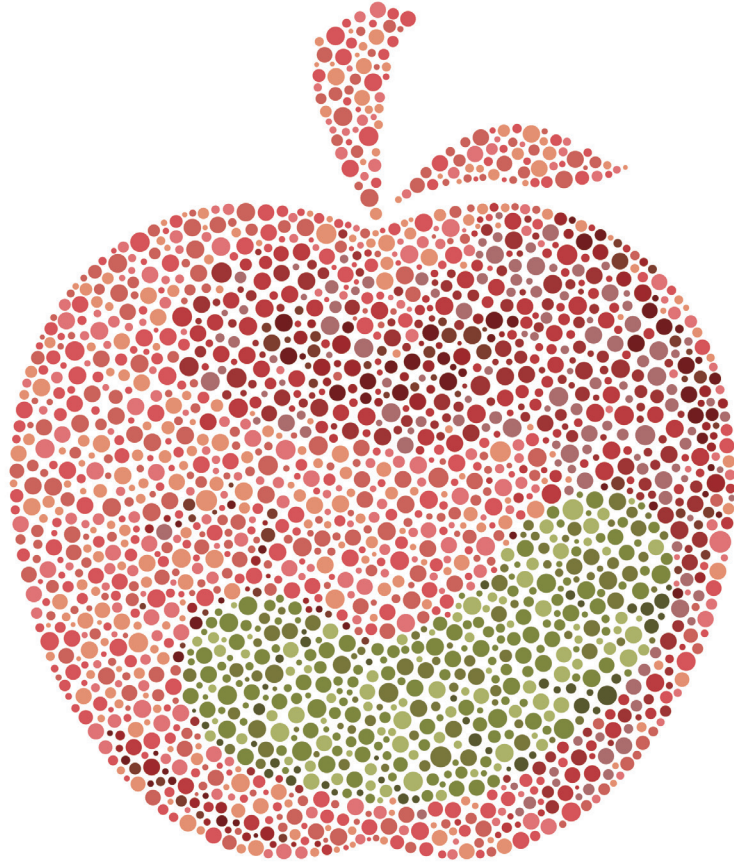
존재의 흔들림

자신의 선택과 생각에 대한 책임을 나타낸다. 분열한 형상은 불안정한 나를 나타내며, 앞을 보는 시선은 자각과 소멸을 상징한다. 나다움이 사라져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잃어가고 있는지를 비로소 자각하게 된다.



문재웅

Mun jae woong
munjaewoong@mokwon.ac.kr



different from the outside

붉은 사과

색맹 검사표인 이시하라 검사표를 소재로 만든 작품으로, 관찰을 통해 도트 속의 이미지에서 사과를 파먹고 있는 벌레의 모습을 발견하며 직접적으로 시각적 각성을 경험할 수 있다.



박 성 하

Park seong ha
munnnnm8@gmail.com



Motion Po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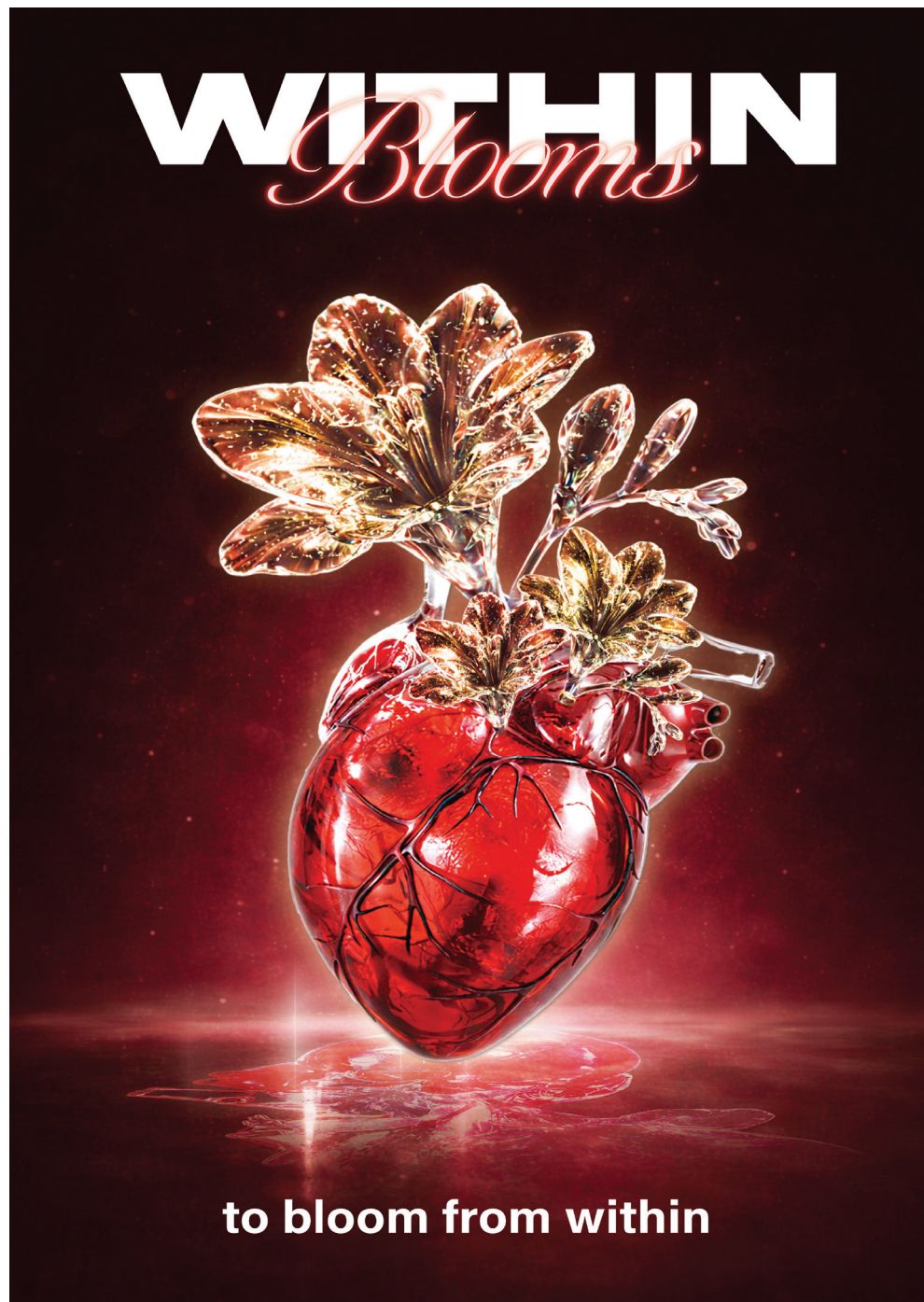
SLOTchat

AI는 오류가 많고 확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의심 없이 소비한다. AI 의존이 일상이 된 지금, 당신은 검색을 하고 있는가, 도박을 하고 있는가?



박 유 나

Park you na
yuna041031@naver.com



within blooms

내면에서 피어나는 프리지어를 통해 성장과 각성의 순간을 표현한 작업이다. 심장은 내면을 상징하며, 심장에서 피어나는 꽃은 조용한 용기와 내면의 성장을 의미한다. 어두운 배경 속 빛과 입자는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가 확장되는 순간을 나타내며,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스스로 드러나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박 지 영

Park ji young
algusl62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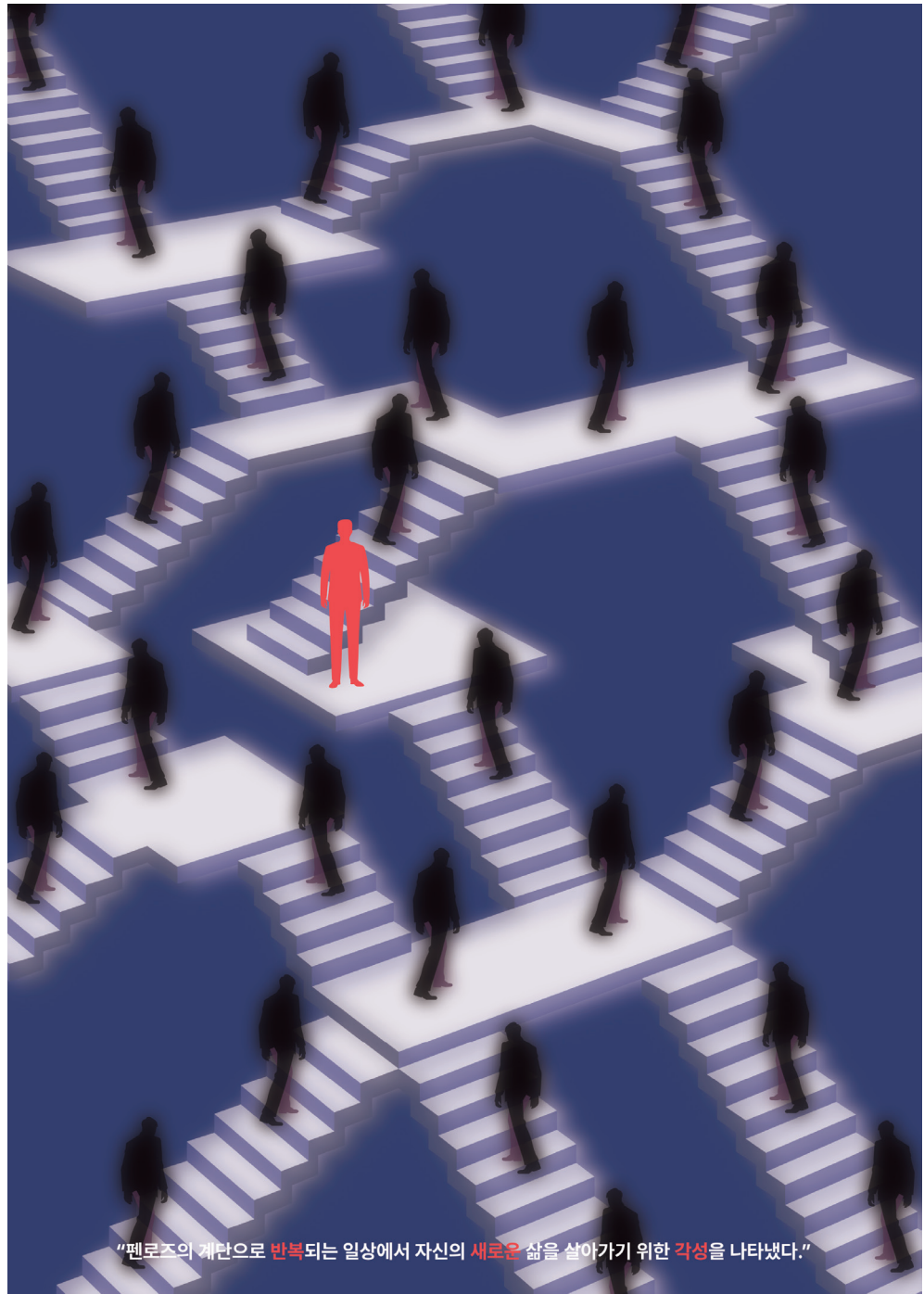
Digital Abduction

스마트폰의 작은 액정은 현대인의 일상을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 'Digital Abduction'은 중력을 잃고 가상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인물들을 통해, 접속이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상실해 가는 현실의 무게와 주체성, 그리고 본연의 자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백 서 연

Baek seo yeon
bsy6063@gmail.com



“펜로즈의 계단으로 반복되는 일상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각성을 나타냈다.”

펜로즈의 계단

대부분의 사람은 반복적인 일상을 보낸다.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고 번 돈을 쓰고 다시 벌고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러한 삶에 지루함 또는 무력감을 느끼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 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이 삶에 대한 각성이 아닐까?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서 채 하

Seo chae ha
lgye398@gmail.com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요?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요?

신문 형식을 활용해 가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극적인 제목과 일부 가려진 내용, 의도된 배치를 통해 정보가 편집과 구성에 따라 쉽게 왜곡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서현빈

Seo Hyun Bin
hyunbin0524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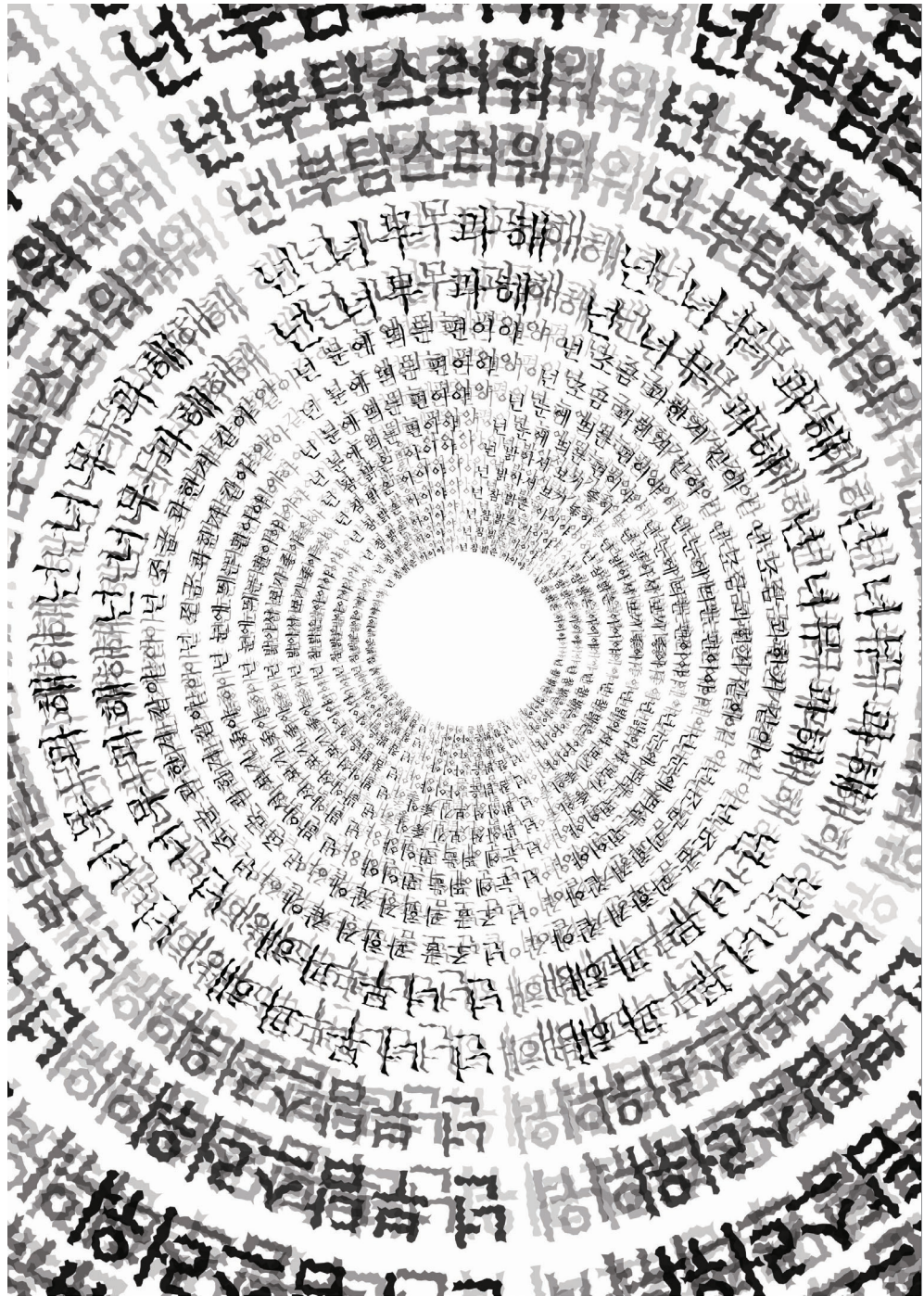
영의 영

왜 우리들은 죽은 영들을 떠올리면 거뿔하고 칙칙한 곳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그들도 생전 자신만의 취향이 있던 한낱 인간이었다.



송 다 연

Song da yeon
songdayeon844@gmail.com



왜곡된 메아리

이 작품은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복과 확산을 거치며 점차 왜곡되는 현상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긍정적인 의도로 시작된 말이 여러 단계를 지나며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결국 부정적인 의미로 변형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원형의 타이포그래피 구조는 소리의 파동과 메아리를 연상시키며, 말이 퍼져나가는 흐름과 전달 과정을 드러낸다.



양 보 리

Yang bo ri
rd09721@gmail.com



연출된 행복

우리는 SNS에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연출해 올리고, 타인이 올린 그 장면을 보며 그것을 행복이라 믿는다. 그러나 연출된 화면 밖에는 어질러진 현실이 존재한다. 이 작품은 그 간극을 드러내며, 무심히 소비해 온 디지털 이미지들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각성은 화려한 프레임 밖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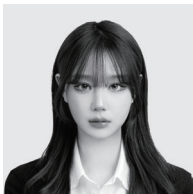
오 지 원

Oh ji won
ojw20053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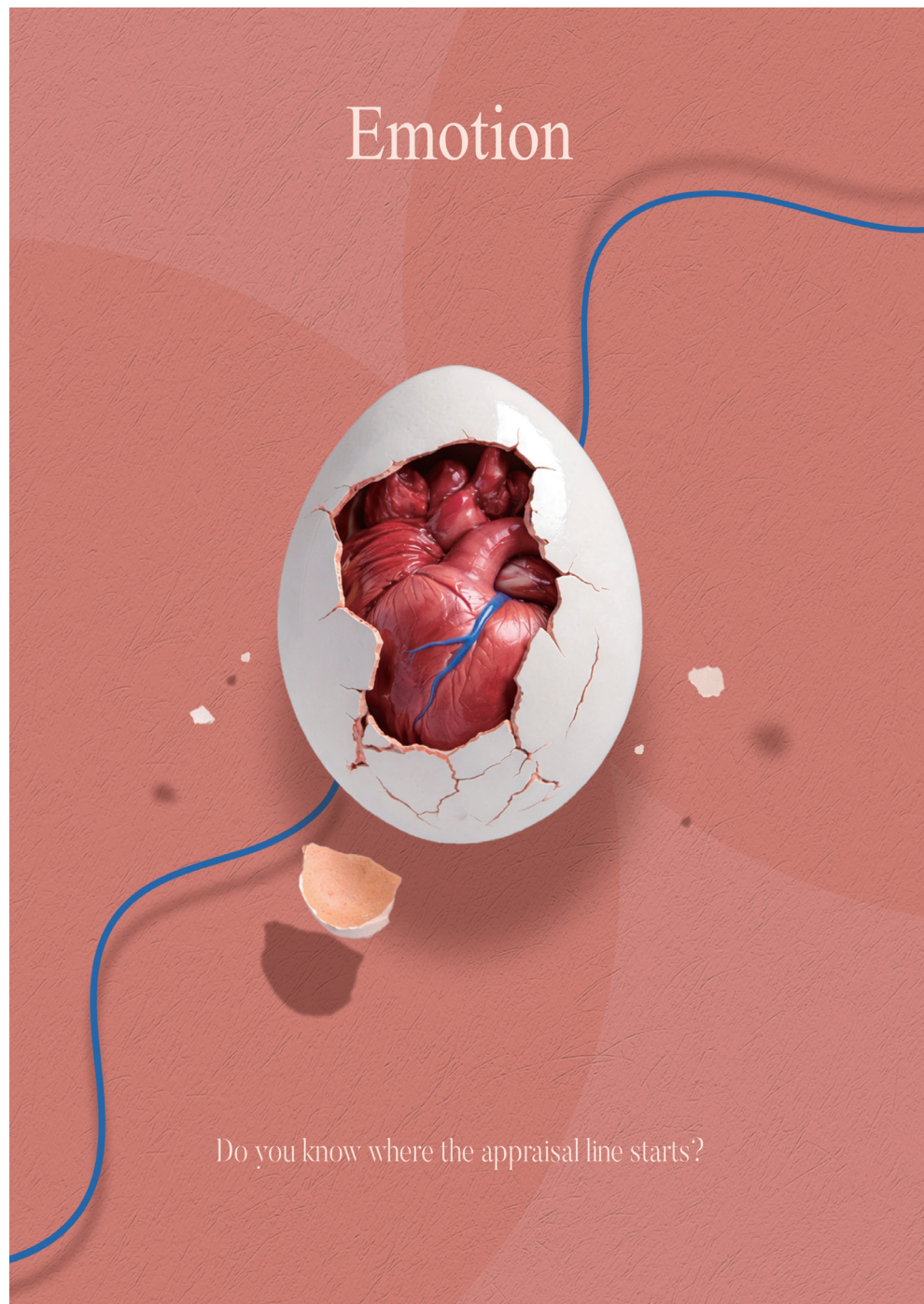
Behind the Feed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정교하게 조립된 SNS 피드는 때로는 본연의 자아를 가두는 프레임이 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화려한 퍼즐 조각 뒤에 숨겨진 가공되지 않은 '진짜 나'를 직면하는 찰나를 포착해 진정한 주체성을 되찾는 '각성'의 순간을 보여준다.



윤수영

Yun soo young
apdul134@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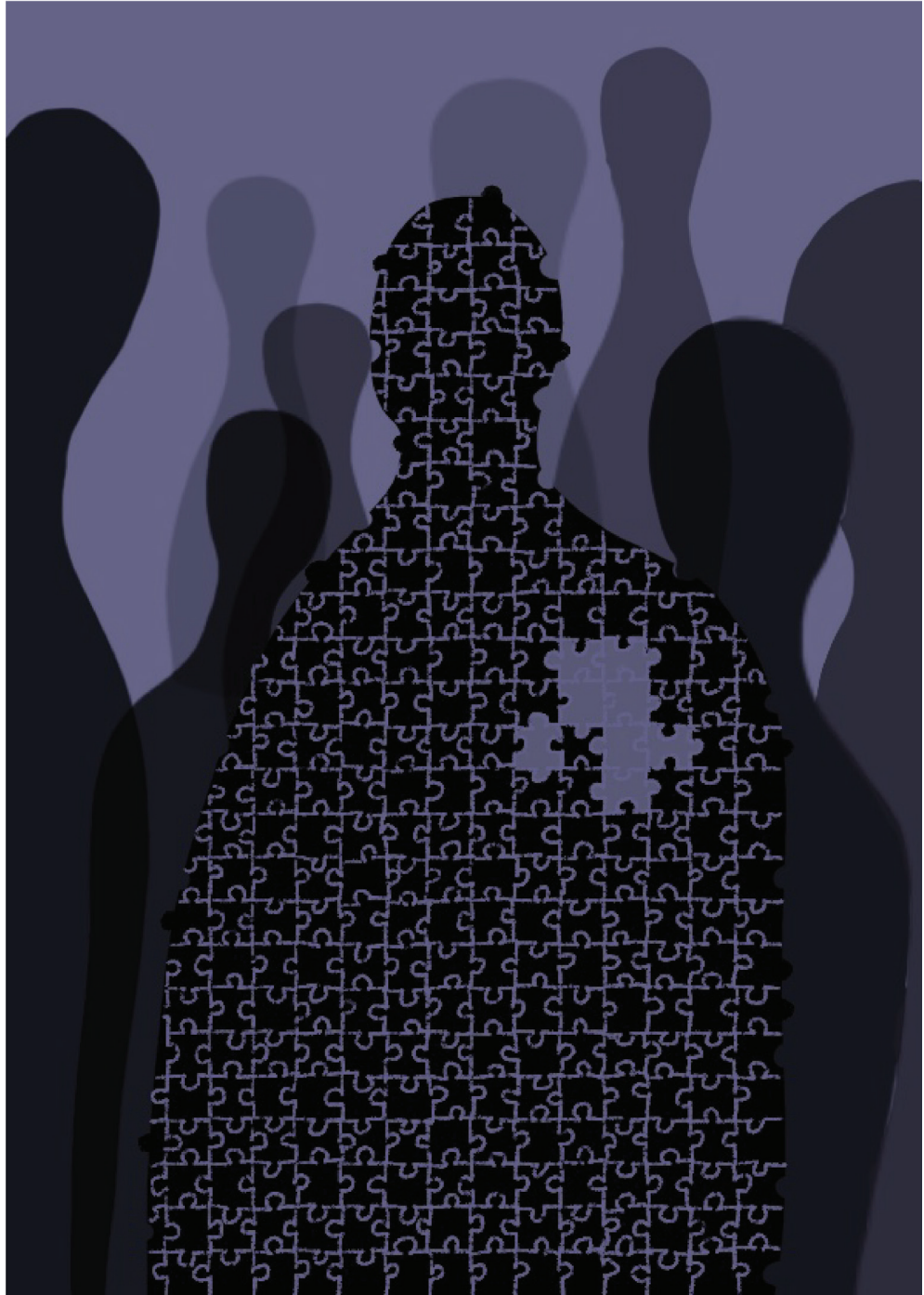
Emotion

Emotion은 인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각성의 순간을 표현한다. 강렬한 붉은 배경은 감정의 에너지와 긴장, 그리고 자각의 순간을 상징하며, 감정이 자신을 인식하는 내면의 변화를 드러낸다.



이 다 정

Lee da jung
keel2312@naver.com



각성의 틈

가슴의 구멍은 인간 내면의 결핍과 공허를 상징한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그 빈 공간을 인식하는 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뒤의 그림자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 아직 마주하지 못한 또 다른 자아를 의미한다. 퍼즐 형태는 다양한 경험과 감정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나타내며 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곧 자기 인식이자 각성의 시작이다.



이 유 진

Lee yu jin
yujinee120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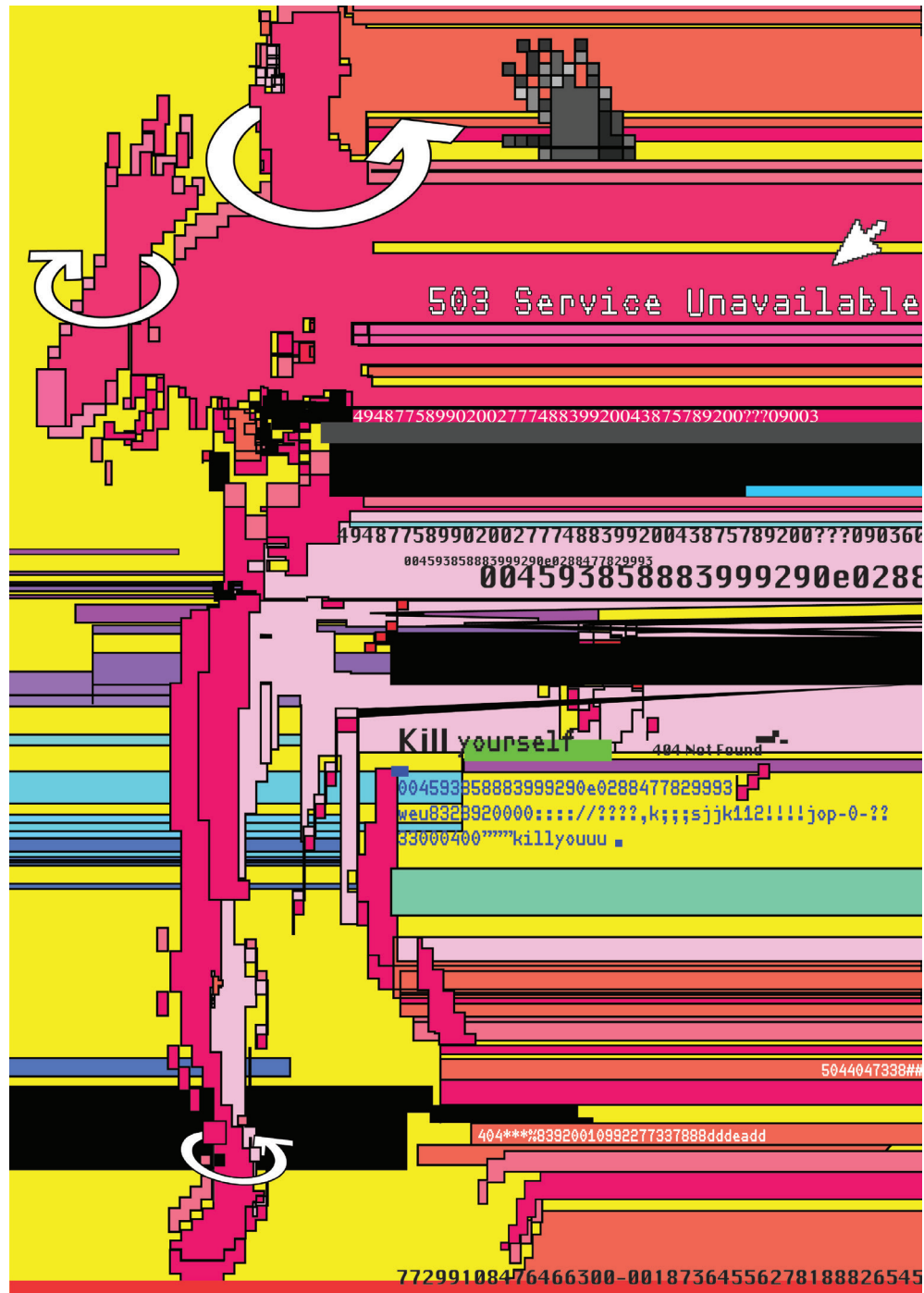
Curated Taste

잔 위에 놓인 '크림과 생선'이라는 기괴한 조합은, 오직 압도적인 가격표 하나만으로 '고귀한 취향'인 척 위장한다. 우리는 내용물의 비상식적인 조화를 무시한 채, 비싼 가격이 주는 권위에 현혹되어 타인이 설계한 허상을 자신의 취향이라 착각하며 소비하고 있지 않냐는 의문을 주는 작품이다.



이 채 원

Lee chae won
051027lcw@naver.com



PULL TO STRANGLE

무심한 새로고침이 만든 올가미는 피해자의 일상을 조이며 자아를 갈기갈기 파헤친다. 알고리즘이 선별한 가짜 뉴스와 증폭된 분노는 수천 개의 화살이 되어 표적을 난도질한다. 맹목적인 믿음이 집단 린치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파편화된 피해자의 자아와 광기 어린 군중의 잔혹성을 폭로하며 묻는다. "당신이 당긴 것은 화면입니까, 누군가의 생명입니까?"



장 보 배

Jang bo bae
bobae5979@naver.com



당신이 본 뉴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는 빠르게 생산되고 확산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가 진실의 형태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은 뉴스를 작성하는 순간 생성되는 왜곡된 정보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



정수영

Jung soo young
jeongsy050513@gmail.com

MISSING

HAVE YOU SEEN EGO?



<Missing>

현대사회에서 외부가 요구하는 여러 자아와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동일 인물이다. 사회적 자아 속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그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각성이다.



조 원 상

Jo won sang
dnjstkd0722@naver.com



물구나무를 선 사람

보편적 상식이라는 틀 안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각성한 개인이 겪는 대중의 시선을 담아 보았다. 똑바로 걷는 무리 속에 홀로 물구나무를 선 인물은, 당연시되던 천동설 시대에 지동설을 외쳤던 갈릴레이처럼 통념을 깬 각성자를 상징한다.



조 하 영

Cho ha yung
chohayu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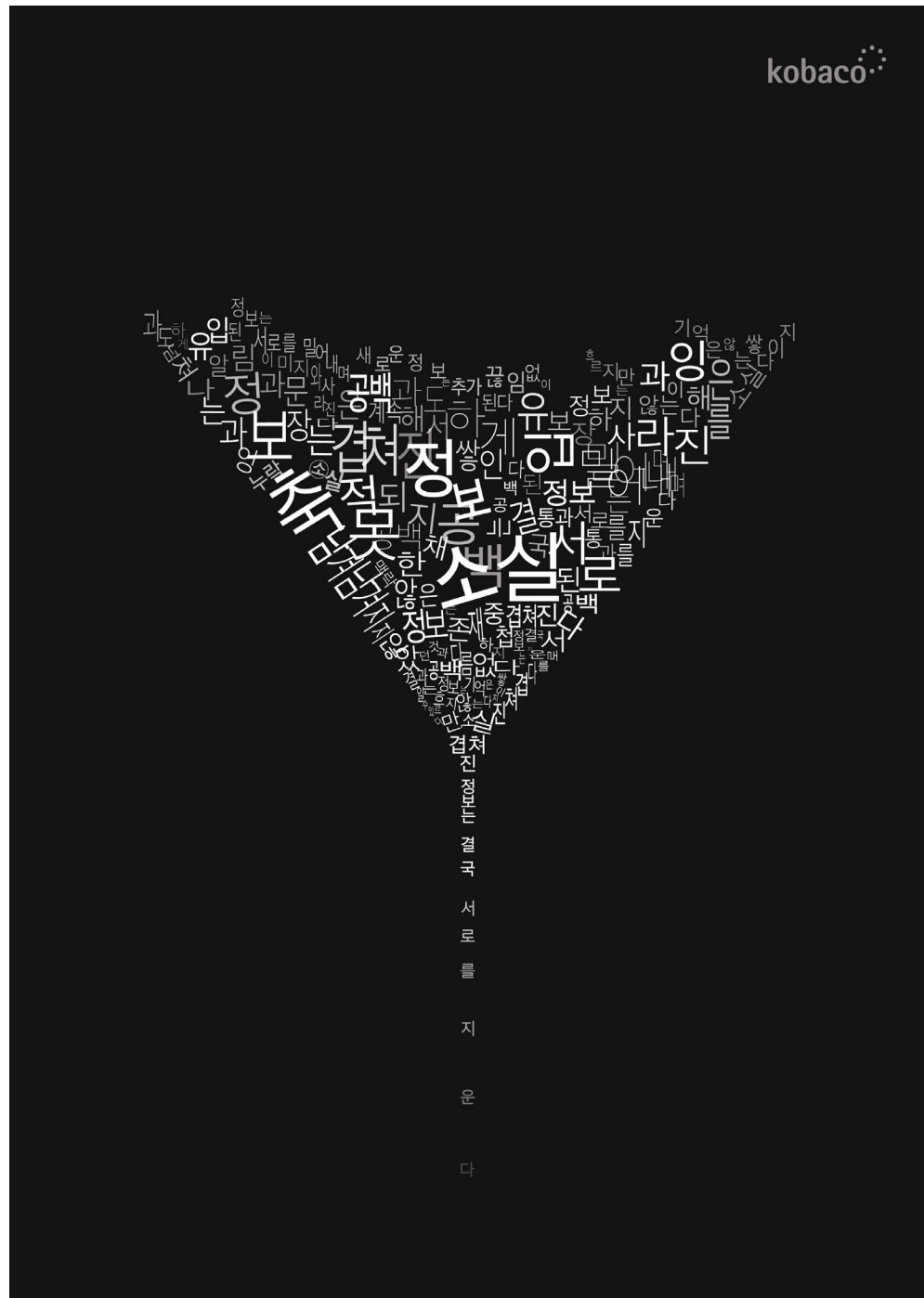
엄마

'엄마'라는 호칭 속에서 한 개인의 이름은 조금씩 지워진다. 익숙하고 따뜻한 이름이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의 고유한 이름은 점점 희미해진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엄마를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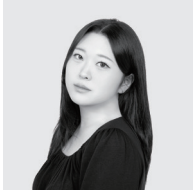
허 예 진

Heo ye jin
va14863@naver.com



겹쳐진 정보는 결국 서로를 지운다

과잉된 정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흘려보내는지를 시각화한 작업이다. 깔때기꼴(원뿔꼴) 구조를 따라 유입된 텍스트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겹치고 압축되며 덩어리로 소실된다. 이 과정은 “겹친 정보는 결국 서로를 지운다”라는 상태를 드러내며, 빠른 정보 소비 속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기억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황혜진

Hwang hye jin
jinc099@daum.net



익속해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

반복된 경험은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이 작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대상에 주목한다. 리모컨을 감정과 관계를 조절하는 인터페이스로 재해석하여, 반복적으로 조작되는 감정 버튼을 통해 익숙해진 감각이 기능처럼 소비되는 상태를 표현했다.

76 PROFILE
STUDENTS ADDRESS

4학년

박예슬	ysdrdsy03@gmail.com	김은기	dmsrlsms02@naver.com	오은채	oocc3292@naver.com
황수진	n1zus@naver.com	김이설	seol0k22l@gmail.com	유경주	kyun900@naver.com
고은하	dmsgdkdfk@naver.com	김현아	ghyeona66@gmail.com	유희연	djnshsis@naver.com
서구	tjrnsplwq@gmail.com	김현태	daehopk2@naver.com	이수환	dltngkhs0000@naver.com
박간비	qkrrksq123@gmail.com	김호재	hojae1343@gmail.com	이여진	dlduws1021@naver.com
김민진	alraosand@gmail.com	김희은	kheun610@gmail.com	이윤진	yjj647311@naver.com
오지은	ohjieun3993@naver.com	박성빈	yuiop0864@naver.com	이호윤	dfsvggd@gmail.com
오채은	kitty0338@gmail.com	박송이	wer2166@naver.com	임정빈	imjoungbin@naver.com
박서연	sbag44621@gmail.com	박영채	1208qkrdudco@naver.com	임채현	l56077825@gmail.com
유예소	yuyeso3300@naver.com	박준혁	pq098mok@gmail.com	조수현	naomi0829a@naver.com
곽유섭	dbtjq0605@naver.com	배종우	qowhddn7076@naver.com	조윤재	cyj3086@gmail.com
김유경	jido1103@naver.com	신가경	gakeong513@naver.com	채서현	cotj4628@naver.com
김유나	alsdb21@naver.com	신웅재	tlsdndwo14@naver.com		
김유진	juliekim2109@gmail.com	오수빈	subi00909@gmail.com		

3학년

김예린	yemung2@naver.com	문가은	mge4172@gmail.com	이채원	051027lcw@naver.com
강민서	atelierone@naver.com	문재웅	munjaewoong@mokwon.ac.kr	임윤재	yjlim32900@gmail.com
강연욱	kangyw1019@gmail.com	박성하	munnnnm8@gmail.com	장보배	bobae5979@naver.com
강은비	eunbi2476002@naver.com	박유나	yuna041031@naver.com	정수영	jeongsy050513@gmail.com
권구현	guhyunkwon322@gmail.com	박지영	algusl622@gmail.com	조원상	dnjstkd0722@naver.com
권세라	jjas0@naver.com	백서연	bsy6063@gmail.com	조하영	chohayung@gmail.com
김민주	pyodo101004@gmail.com	서채하	lgye398@gmail.com	허예진	va14863@naver.com
김민주	minjukim5@naver.com	서현빈	hyunbin05240@gmail.com	황혜진	jinc099@daum.net
김서영	suyoung021500@gmail.com	송다연	songdayeon844@gmail.com		
김서진	jaemsug@gmail.com	양보리	rd09721@gmail.com		
김아현	ahh040203@naver.com	오지원	ojw200530@gmail.com		
김유진	yujinkim098@gmail.com	윤수영	apdul134@naver.com		
나해진	heajin5989@naver.com	이다정	keel2312@naver.com		
남주희	namjuhee0408@naver.com	이유진	yujinee1205@naver.com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제 47회 펴 그래픽 전시회

펼 준비위원회

STAFF

펼장 박예슬

부펼장 김예린

포스터 리더 황수진 부리더 김민진

편집 리더 고은하 부리더 오지은 오채은

영상 리더 서구 부리더 박서연

전시기획 리더 박간비 부리더 유예소

지도교수 김민석 김정훈 이미나 백승재 이나림 이현주 교수님

Special thanks to 정진영 교수님



본 전시는 목원대학교 RISE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각디자인학과 캡스톤디자인워크숍

